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영상자료를 활용한 한국인의
영어 화용 능력 연구



202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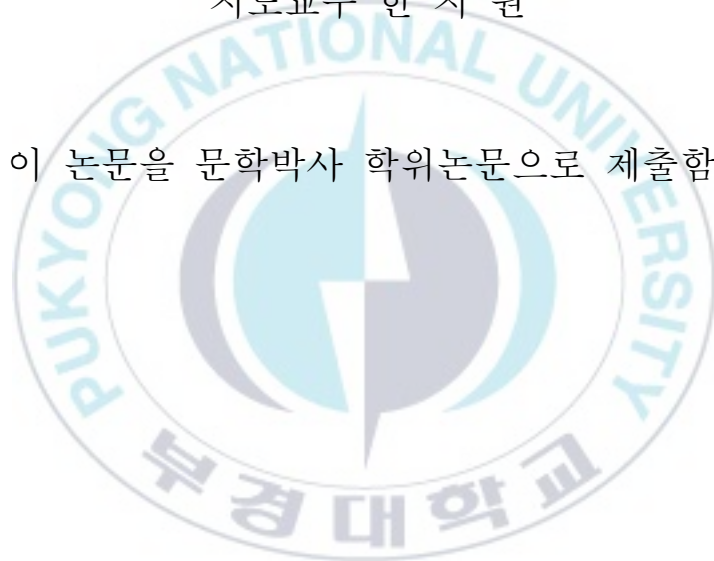
박 혜 림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영상자료를 활용한 한국인의
영어 화용 능력 연구

지도교수 한 지 원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박 혜 립

박혜림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2월 21일



위원장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위원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위원	언어학박사	John Stonham	
위원	언어학박사	김 소 영	
위원	문학 박사	권 성 미	

목 차

Abstract	vi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2.1 화용능력	4
2.2 공손 원리	5
2.2.1 Lakoff의 공손 원리	6
2.2.2 Leech의 공손 원리	9
2.2.3 Brown & Levinson의 공손 원리	14
2.3 한국어 정중장치	33
2.4 화용능력 향상을 위한 영상의 활용	35
III. 영상을 활용한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 사용 양상	36
3.1 연구 도구	36
3.2 자료 수집	38
3.3 연구 분석 및 결과	43
IV. 영상을 활용한 한국인과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 양상	53
4.1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 인식 양상	53

4.1.1 연구 과제 및 연구 대상	53
4.1.2 자료 수집	54
4.1.3 분석 및 결과	62
4.2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 양상	67
4.2.1 연구 과제 및 연구 대상	67
4.2.2 자료 수집	68
4.2.3 분석 및 결과	69
4.3 한국인과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 양상 비교	73
V. 영상을 활용한 화용연구의 실증적 접근	79
5.1 연구 도구	80
5.2 연구 방법	83
5.2.1 연구 설계	83
5.2.2 연구 절차	86
5.3 분석 및 결과	87
5.3.1 텍스트를 통한 화용능력 측정 결과	87
5.3.2 영상을 통한 화용능력 측정 결과	89
5.3.3 텍스트와 영상을 통한 화용능력 비교	91
VI. 결론	97
참고문헌	99
부록	103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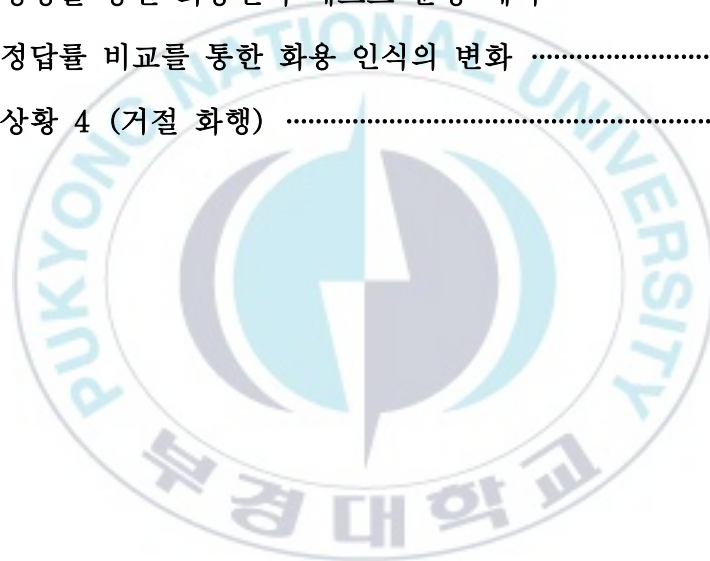
<표 1> 손익 척도	13
<표 2> 선택 척도	14
<표 3> 노골적 발화 전략 분류	18
<표 4> 한국어 정중 장치 분류	34
<표 5> 한국어 정중장치에 따른 영화 속 한국어 대사 분류	40
<표 6>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1	44
<표 7>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2	45
<표 8>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3	46
<표 9>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4	47
<표 10>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5	48
<표 11>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6	49
<표 12>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7	51
<표 13> 영어 정중장치 분류	55
<표 14> 한국인 영어 정중장치 사용의 적절성 인식 양상	63
<표 15> 원어민의 영어 정중장치 사용의 적절성 인식 양상	70
<표 16> 한국인과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 차이	76
<표 17> 영화 속 화행	81
<표 18> 테스트의 화행 종류	84
<표 19> TEST 1의 정답률	88
<표 20> TEST 2의 정답률	90

<표 21> TEST 1과 TEST 2의 대응표본 검정결과	95
--	----



그림 목차

<그림 1> FTA 공손 전략	16
<그림 2> 체면 위협 행위의 비중	17
<그림 3> 연구 자료로 용한 번역과제 예시	38
<그림 4> 텍스트를 통한 화용인식 테스트 문항 예시	85
<그림 5> 영상을 통한 화용인식 테스트 문항 예시	86
<그림 6> 정답률 비교를 통한 화용 인식의 변화	92
<그림 7> 상황 4 (거절 화행)	93



A Study on Pragmatic Competence of Korean through Movies

Park, Hye Rim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agmatic competence of Korean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s through three different empirical studies. Language competence includes not only the grammatical ability but also the pragmatic competence. The former is to use correct vocabularies or sentences and the latter is to use the language appropriately depending on given situation(Canale & Swain, 1980).

The firs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English politeness use of Korean EFL learners in terms of pragmatic competence. For this study, a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translation assignment which was for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Korean EFL learners tried to use proper English politeness strategies, even though there were difficulties in translation because of the difference concept between Korean and English politeness. However, the use of English politeness was limited to such strategies as auxiliary verb, we-form.

The second study is to compare awareness of politeness between 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and Korean English teachers. A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wareness of English politeness of each.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awareness between 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and Korean English teachers, which were 4 questions out of 10. Based on this survey, Koreans need to improve of English politeness.

The third study is to identify the need of different approach depending on the research materials. A research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university students in two steps according to the research material, script and vide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ragmatic competence. Therefore, there should be meaningful discussions about distinction between written text and spoken(video) to measure pragmatic awareness.

Three different studies are conducted to identify pragmatic competence of non-native English speakers. As a result, non-native English speakers need to improve their politeness awareness in terms of pragmatic competence.

I. 서론

외국어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문법과 어휘에 관련된 언어적 지식 뿐 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발화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라고 하며 이는 어휘나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인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과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인 화용적 능력(pragmatic competence)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Canale & Swain, 1980). Kasper(2001)는 이러한 언어 능력을 학습자들이 개발하고, 습득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상실할 수도 있는 유기적인 것으로 실제적인 지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대화가 발생하는 상황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의 사용이 언제나 완벽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없으며, 대화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발화는 오히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 Wolfson(1988)은 원어민 화자가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외국인 화자의 문법적 오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공손성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대방을 무례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공손법과 관련된 화용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대화에서 상황

에 맞는 적절한 공손 표현의 사용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공손의 표현은 영어와 한국어 문화권에 관계없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영미권이 인식하고 있는 정중성의 개념의 의미가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은 경어법(honorifics)을 사용하여 공손을 표현한다. 이는 대화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못한 표현을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을 최대화하여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어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 화자와 청자가 상대방에 대해 낮은 입장을 취하여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체면을 유지하여 상호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한국에서 존댓말은 발화 주체와 상대방의 관계가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나이나 신분, 사회적 친밀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하는 적극적 체면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개인보다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

영어권에서는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지속을 위해서 공손 표현을 사용한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상호 관계의 유지가 공손 표현의 목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전략적 측면이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정중성(politeness)는 상대방의 요구를 예측하여 곤란을 피하려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에 대한 가치에 집중하여 독립적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개인이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와 영어권에서 정중성에 대한 언어적,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내재된 영어권의 배경지식이 부족한 한국인 학습자는 영어 정중성의 표현을 구현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공손 장치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화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정중성의 사용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화용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화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화용 능력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 중 하나는 영화와 같은 영상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화용 능력 연구에서 실제로 연구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영상의 텍스트만을 활용한 사례가 많은 것에 주목하여 실제 텍스트만을 활용한 연구가 영상을 활용한 연구와 차이가 없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화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의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영어 화용 능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연구를 각각 실행하였다.

첫째, 한국인 학습자들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영어 정중장치를 사용하는지 그 양상을 알아보고 한국인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영어 정중 장치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인과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한국인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어 정중장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정중성과 같은 화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은 영상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화용 연구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화용 능력 (Pragmatic Competence)

Chomsky(1965)는 문법 규칙에 관한 지식을 능력(competence), 특정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사용을 수행(performance)로 나누어 정의하면서, 수행의 개념만을 언어 사용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Hymes(1972)는 위의 언어 사용 개념에다 적절한 상황에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하여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문법적 능력 외에도 적절성과 관련된 실행이 될 수 있는가(implementation),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actual performance), 사회언어적인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을 말하며, 의사소통능력이라는 것은 대화에서 청자와 화자가 서로의 의미를 주고받고 이해하고 절충(negotiation of meaning)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Bachman(1990) 또한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설명할 때 두 가지 능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 능력(organizational competence)과 화용적 능력(pragmatic competence)이다. 조직적 능력은 언어의 형태에 해당하는 문법과 담화의 규칙 등을 나타내는 문법 능력과 담화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용적 능력은 사회언어적 능력과 연표내적 능력(illocutionary competence)으로 나누고 있다. 연표내적 능력은 화자가 의

도에 대한 이해와 발화가 적절했는가와 연결된 개념으로 이는 언어의 기능과 화행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사회언어적 능력은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언어의 변이, 사용역, 자연스러움에 대한 민감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화자의 발화 의도나 상황에 따라 화행의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Hatch(1992)와 Judd(1999)는 화용 능력을 Bachman이 제시한 두 가지 능력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지므로 화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화의 적절함은 사회언어학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화용능력은 사회언어학적으로 고려된 화행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학자들을 종합해보면 화용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맥락 안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2 공손 원리

공손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의 역사적 배경, 윤리, 문화에 따라 공손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이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는 공손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다.¹⁾ Hill et al.(1986)²⁾도 역시 공손성이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제약 중 하나로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1) showing or characterized by correct social usage: marked by an appearance of consideration, tact, deference, or courtesy(Merriam-Webster Dictionary)

2) one of the constraints on human interaction, whose purpose is to consider others' feelings, establish levels of mutual comfort and promote rapport”(Hill et al.1986)

목표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손성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교적 기능을 가지며, 또한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언어의 형태로 공손성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Watts et al.(1992)은 공손을 일차적 공손과 이차적 공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전자는 에티켓이나 예절과 같이 일반적인 상식수준의 공손성을 말하며, 후자는 이론적 구성성분으로 공손성을 언어행위와 언어사용의 학문적 영역으로 기술한 용어이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공손현상을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학자들의 공손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Grice(1975)의 대화협력원리를 바탕으로 공손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Lakoff(1973)와 이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손 원리를 전개한 Leech(1983), 그리고 체면을 중심으로 한 Brown & Levinson의 공손 이론과 공손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2.2.1. Lakoff의 공손 원리

공손이론은 Grice의 대화 협력 원칙(Co-operative Principle, 이하 CP)이 적용되지 않는 많은 예외 현상을 설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인 Lakoff(1973)는 처음으로 공손이론을 언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대화는 정보 공유의 기능과 함께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여 상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의 의사소통에서 CP가 항상 지켜지지 않음을 발견하고, 언어적 요소 이외에 문맥에서 화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즉, ‘화용 능력(pragmatic competence)’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안하였

다.

(1) Lakoff의 화용 규칙 (Rules of Pragmatic Competence)

- a. 명료하라. (Be clear.)
- b. 공손하라. (Be polite.)

(1)의 a는 CP와 같은 맥락으로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 정보나 지식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전달함으로써 완벽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규칙이다. 반면 (1)b는 대화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언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Lakoff는 위의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공손이 명료한 것 보다 우선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³⁾ 이는 대화에서 정보전달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공손 규칙은 다음의 세 가지 하위 규칙으로 세부화 된다.

(2) Lakoff의 공손 규칙(Rules of Politeness)

- a. 격식성(Formality) : 강요하지 말라.(Don' t impose.)
- b. 주저성(Hesitancy) : 선택권을 주어라. (Give option.)
- c. 동등성(Equality or Camaraderie) : 청자를 기분 좋게 해라.
(Make addressees feel good.)

(2)의 a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어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고 부담을 주

3) Politeness usually supercedes: it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in a conversation to avoid offense than to achieve clarity. This makes sense, since most informal conversations, actual communication of important ideas is secondary to merely reaffirming and strengthening relationships (Lakoff 1973:297-298)

지 말라는 규칙으로 격식을 갖추어야할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방법이다. (2)의 b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마지막 동등성은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손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를 아래의 예문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 a. Dinner is served.

b.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c. You wanna eat?

격식을 갖추어야하는 상황에서 (3)의 a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you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서 청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경우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발화함으로써 공손함을 표현하고자 하므로 청자와 화자가 언급되지 않는 수동태구문이나 비인칭구문이 적절하다. (3)b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의 공손을 표현할 때 적절한 예문으로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결정의 권리를 부여하는 표현방식이다. 부가의문문(tag question), 미화법(euphemism), 느슨하게 말하기(loosely speaking), 울타리어(hedge)와 같은 표현방법이 비격식적 상황에서 공손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c의 문장은 친밀한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표현으로 친밀감을 주는 honey와 같은 애칭, 축약, 청자와 화자가 모두 알고 있는 속어 등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공손표현이다.

Lakoff가 제시한 공손의 규칙에서는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상황을 구별하는 기준의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이고, 그 규칙이 간략하여 포괄적인 언어의 공손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2.2 Leech의 공손 원리

사회언어학자 Leech의 공손 원리도 Lakoff의 공손규칙과 마찬가지로 Grice의 대화 격률의 관점에 근간을 두고 출발하였다. Lakoff의 공손규칙이 대화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에 무게를 두었다면, Leech는 효과적인 언어 사용의 관점 즉, 화용의 관점에서 공손을 연구하였다. 화자가 발화로 전달하고자 하는 화행인 발화 수반 목표(illocutionary goal)와 화자의 입장을 나타내는 사회적 목표(social goal)에 따라 대인적 수사법(interpersonal rhetoric)과 문맥적 수사법(textual rhetoric)으로 대화원리를 구분하였다. 대인적 수사법에는 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 공손원리(politeness principle), 모순원리(irony principle)의 세 격률에 작동된다고 보았다. 이 중 협력원리는 간접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발화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를 다루고 있으며, 공손원리는 이러한 간접성이 사용되는 이유를 다루고 있는 격률이다. Leech(1983)는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공손원리를 6개의 격률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4) Leech의 공손 원칙(Politeness Principle)

- a. 배려의 격률(tact maxim)
 - 다른 사람의 부담을 최소화하라.
 -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라.
- b.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
 -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라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라.

c. 칭찬의 격률(approbation maxim)

다른 사람의 비난을 최소화하라

다른 사람의 칭찬을 최대화하라

d. 겸손의 격률(modesty maxim)

자신의 칭찬을 최소화하라

자신의 비난을 최대화하라

e. 일치 of 격률(agreement maxim)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동의를 최대화하라

f. 공감의 격률(sympathy maxim).

자신과 다른 사람의 반감을 최소화하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동조를 최대화하라.

위의 여섯 가지 격률은 모두 화자인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인 청자에게 무게를 두는 것이 공손한 표현이며 결국 청자에게 좋은 것은 최대화하고 청자에게 좋지 않은 것은 최소화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배려의 격률은 상대방에게 지워지는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이익은 최대화할수록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것으로 지시화행과 언약화행에 적용된다. 다음의 (5)의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5) a. Take me home.

b. Will you take me home?

위의 예문은 요청의 표현으로 (5)의 a는 명령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거

절할 수 없도록 강제로 말함으로써 청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5)의 b는 yes-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 형식으로 요청하여 상대방에게 요청에 대해 완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5)b는 (5)a에 비해 더 공손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관용의 격률은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자신이 가짐으로써 상대방에게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것으로 이 또한 지시와 언약화행에 적용된다.

- (6) a. I can lend you my car.
b. You can lend me your car.

관용의 격률에 따라 두 문장 중 더 공손한 표현은 (6)a라 볼 수 있다. (6)b에서 상대방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차를 빌려달라는 부담을 주는 대신, (6)b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차를 상대방에게 빌려주어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격률은 칭찬의 격률로 상대방이 들어서 좋지 않은 불유쾌한 발화를 피함으로써 상대방을 무안하지 않게 하는 공손표현이 된다는 것으로 단언 행위(assertive)에 적용된다.

- (7) A: Her performance was magnificent, wasn't it!
B: Was it?

함께 공연을 관람한 후 공연이 좋았다는 A의 말에 B가 직접적으로 'No' 라고 대답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무례한 표현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B와 같이 'Was it?' 으로 응답한다면 비호의적인 견해를

피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으로 공손한 표현이 된다.

네 번째 겸손의 격률은 자아중심적인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여 공손을 드러내는 격률이다. 아래의 상대방이 자신을 칭찬할 때의 대화문을 살펴보자.

(8) A: Your performance was magnificent!

B: Oh, it could be better!

자신을 향한 칭찬의 발화에 함께 동의하는 것은 겸손의 격률에 위배되어 무례하게 여겨지므로 B와 같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와 같은 응답은 겸손하게 여겨져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격률로 일치의 격률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일치-불일치에 대한 것으로 단언 행위에 적용된다. 상대방의 생각에 가능한 동의한다고 응답하는 것이 공손한 것이며, 혹여 의견에 일치가 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공손한 것이 된다.

(9) A: English is a difficult language to learn.

B: True, but the grammar is quite easy.

위의 예문의 B는 영어가 어렵다는 A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True’라고 발화하여 부분적으로 동의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불일치될 때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공손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감의 격률은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 위로하고, 기쁨에 대해서는 축하하는 것이 공손한 발화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10) a. I' m terribly sorry to hear about your cat.

b. I' m delighted to hear about your cat.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 (10)a는 같이 동조하고 있는 위로의 표현으로 공손한 표현이지만, (10)b는 상대방의 슬픔에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으로 응답함으로써 공손하지 못한 발화가 된다.

위의 6가지 원칙들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Leech는 손익 척도(cost-benefit scale)와 선택 척도(optionality scale)와 같은 척도를 제시하여 정중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는 화자나 청자의 발화 내용에 따른 화자 또는 청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커질수록 공손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자.

<표 1> 손익 척도

a. Peel these potatoes!	cost to hearer
b. Hand me the newspaper.	
c. Sit down.	
d. Look at that.	
e. Enjoy your holiday.	
f. Have another sandwich	benefit to hearer

위의 표에서는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청자의 이익이 커져가므로 더 정중한 표현이 된다. 즉, a의 예문은 내용상 청자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명령문

이기는 하지만 화자에게는 이득이 없고 청자에게 이득이 큰 행위의 발화이므로 더 공손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선택 척도를 나타내는 표를 살펴보자.

<표 2> 선택 척도

a. Answer the phone.	directness	less polite
b. I want you to answer the phone.	↑ ↓	↑ ↓
c. Will you answer the phone?		
d. Can you answer the phone?		
e. Would you mind answering the phone?		
f. Could you possibly answer the phone?	indirectness	more polite

<표2>의 예문은 모두 청자에게 전화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 중 a는 직접적인 명령문의 형태로 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 않고 있어 공손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화자의 요청을 전달하는 간접화법을 사용하고 있어 더 정중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2.3 Brown & Levinson의 공손 원리

공손이란 개념은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Lakoff나 Leech의 공손 이론원리로는 모든 문화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 이에, Brown & Levinson(1987, 이하 B&L로 표기)은 서로 친족 관계가 다른 영어, 타밀어(Tamil), 첼탈어(Tzetal)의 세 언어를 분석하였다. 개인,

집단, 상황에 따라 공손 표현이 달라지지만, 대화에서 공손 표현의 원리는 보편적이라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손 원리를 제안하였다. 그들은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의 ‘체면(face)’ 개념을 언어적 공손성에 도입하여 공손전략(politeness strategy)을 기반으로 한 화용 체계를 정립하였다.

Goffman(1967)⁴⁾의 체면은 개인의 신체나 내면의 속성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서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공적인 이미지로 보았다. 대화 상대방의 의해 체면이 상승될 수도, 유지될 수도, 몰락될 수도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공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면유지활동(facework)을 한다.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뿐 아니라 상대방의 체면도 유지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된다.

Brown & Levinson(1987)은 Goffman의 체면 개념을 바탕으로 체면을 ‘자신이 내세우고자하는 공적인 자신의 이미지(the public self-image that every member wants to claim for himself)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나눈다.⁵⁾ 적극적인 체면(positive face)는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타인들로부터 이해, 칭찬, 공감을 얻고 싶은 마음을 말한다. 반면 소극적인 체면(negative face)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를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이성적인 개인이라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체면을 모두 가지며,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4) the positive social value a person effectively claims for himself by the line others assume he has taken during a particular contact (Goffman 1967:5)

5) a. negative face

the basic claim to territories, personal preserves, right to non-distraction
i.e to freedom of action and freedom from im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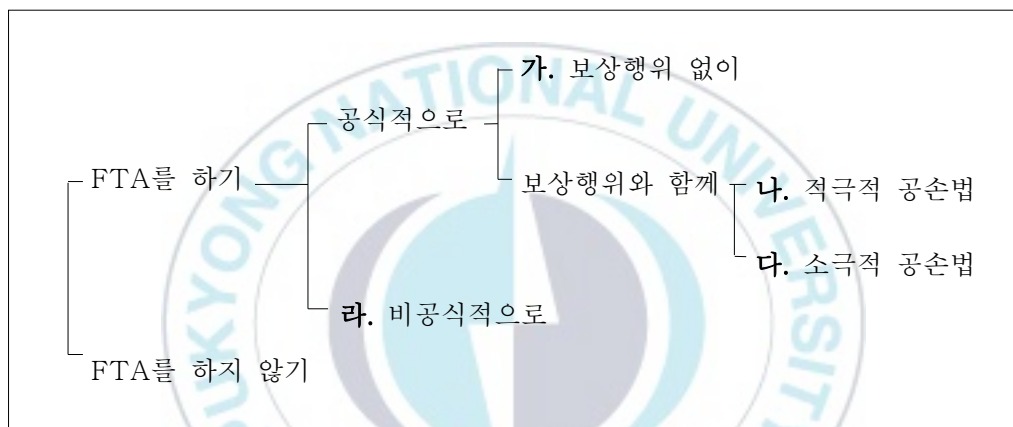
b. positive face

the positive consistent self-image or ‘personality’ (crucially including the desire that this self-image be appreciated and approved of) claimed by interactants.

(Brown & Levinson 1987:61)

을 할 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체면도 손상되거나 위협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이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언어적 공손이라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체면 손상 행위를 체면위협행위(Face Threatening Act: FTA)라고 한다. FTA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한 공손 전략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FTA 공손 전략



위의 그림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체면 손상 정도를 보고, 체면 위협 행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체면 위협 행위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면, 공식적으로(on record) 행할 것인지, 비공식적(off record) 방식을 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전자는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비유나 함축과 같이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뜻한다. 체면 위협 행위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행할 것이라 선택하였다면, 보상행위 없는 노골적으로 발화할 것인지 보상행위와 함께 발화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보상행위가 있는 발화는 적극적 공손법과 소극적 공손법을 사용한 발화로 나뉜다. 따라서 화자는 대화에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체면 위협 행위를 완화하는 방법으

로 발화함으로서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 대한 공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면 위협 행위의 정도, 즉 체면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사회적 변수 (social variables)는 3가지 요인으로 권력(Power), 거리(Distance), 부담의 정도(Ranking of imposition)이다. 이들의 합인 무게(Weightness)에 따라 화자의 완화 전략 선택이 결정된다. 다음은 Brown & Levinson(1984:76)이 제시한 체면 위협 행위의 비중의 공식이다.

<그림 2> 체면 위협 행위의 비중⁶⁾

$$W_x = D(S, H) + P(S, H) + R_x$$

첫 번째 요인 거리 D(distance)는 대화 참여자간의 거리, 즉, 친분 또는 연대 의식(solidarity)를 의미하며 친한 관계에서는 적극적 공손을, 친분의 거리가 있을 때는 소극적 공손을 사용하게 된다. 두 번째 요인 P(power)는 권력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대해 적극적 공손을, 부하직원이 상사에 대해서는 소극적 공손 전략을 구현하게 된다. 마지막 R(ranking of imposition)은 발화 내용이 한 문화 내에서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문화 차이에 따른 부담의 정도를 의미한다. 부담이 클수록 소극적 공손을, 적을수록 적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들의 합인 W_x 는 x 에 해당하는 행위가 가지는 체면 위협 행위의 양이다. 이 값에 따라 공손성의 정도가 다른 언어 형태가 선택된다. 다음은 Brown & Levinson의 공손 전략에 따라 그 정도가 낮은 순서대로 가~라의 항목을 부여하여 각각 살펴보기로 하자.

6) S : speaker, H : hearer, X : action

가. 보상 행위 없는 노골적 발화 (without redressive action, baldly)

보상 행위 없이 노골적으로 발화하는 이 단계는 상대방의 체면과 상관없이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명시적 전략이다. 즉, 의사소통에서 의미전달의 효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Moor(2005)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로 분류하였다.

<표 3> 노골적 발화 전략 분류

번호	분류	예시
1.	긴급 상황 An Emergency	a. HELP !!! b. Look out!
2.	과제 지향적 Task Oriented	c. Give me those! d. Turn off the light!
3.	직접적 요구(청자를 위한) Request	e. Put your jacket away! f. Get me a glass of water!
4.	경각심 일깨우기 Alerting	g. Turn your light on!(While driving) h. Be careful! The floors are slippery.

<표 3>의 예시 a, b와 같이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직접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아주 긴급한 상황을 직접 말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c와 d의 예시는 화자와 청자가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핵심이 되는 것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여 화자의 발화수반력을 높이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예문 e,f는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내용이 청자에게 꼭 필요한 것임이 이해되어지는 상황이므로 청자의 체면에 문제되지 않는 발화가 된다. 또한 마지막 경각심 일

깨우기는 긴급한 종류의 상황에서 화자가 경계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으로 <보기 3>의 예문 g와 같이 운전자에게 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발화수반적 의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적극적 공손 전략 (Positive Politeness Strategies)

타인에게 존중 받고 싶은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충족시키는 전략으로 체면 위협 행위를 적극적 정중성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다. 화자는 청자와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으며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자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어 서로가 우호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여 청자의 체면 위협 행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다정한 말, 동의어 사용, 친밀함 드러내기 등이 특징이다. 적극적 공손 전략(PPS: positive politeness strategies)은 다음의 15가지 전략으로 구현된다.

- (11) 전략 1: Noticing, attending to Hearer(청자에 대한 관심 표명)
- a. Goodness, you cut your hair! By the way, I came to borrow some flour.
 - b. You must be hungry, it's a long time since breakfast. How about some lunch?

(11)a와 b의 예문처럼 화자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함으로서 정중한 표현을 실현시키고 있다. 상대방의 변화나 현재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표현함으로서 공동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서로의 간격을 줄이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12) 전략 2: Exaggeration(과장)

- a. What a fantastic garden you have!
- b. How absolutely (marvellous/ extraordinary/ incredible)!

이 전략은 청자에게 흥미나 승낙, 동정 등의 감정을 드러낼 때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청자와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어조와 강세, 강화 수식어 등을 사용한다. (12)의 예와 같이 감탄문을 사용하거나 (12)b에 사용된 ‘absolutely’ 와 같은 과장 어휘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이러한 어휘에는 ‘for sure’ , ‘really’ , ‘exactly’ 등이 있다.

(13) 전략 3: Intensifying interest to Hearer(청자에 대한 관심 증강)

- a. you know?, see what I mean?, isn’ t it?

이 전략 역시 청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화 속에 청자를 끌어들여 대화 구성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13)a과 같이 ‘you know?’ 와 같은 말이나 ‘isn’ t it’ 과 같은 부가의문문을 사용한다.

(14) 전략 4: Using in-group identity markers(동질그룹 표식어 사용)

- a. Come here, mate/ honey/ buddy.
- b. Lend us two bucks then, wouldja Mac?
- c. Mind if I smoke?

은어나 속어, 축약어나 생략, 호칭어, 또는 동일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언어 등이 동질그룹 표식어에 해당한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동일 집단에 속해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이 때 사용하는 호칭은 (14)a와 같이 ‘honey’

등을 포함하여 ‘dear’ , ‘sweet heart’ 등이 있으며 (14)b,c와 같이 속어나 생략 등을 사용함으로써 동질 집단의 소속임을 드러내고 있다.

(15) 전략 5: Seeking agreement (동의 구함)

A: I had a flat tire on the way home.

B: Oh God, a flat tire!

(15)는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여 동의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then’ 이나 ‘so’ 등을 사용하여 유사동의를 표현할 수 있으며, ‘sort of’ , ‘kind of’ 등의 애매한 표현을 이용하여 동의를 나타낼 수도 있다.

(16) 전략 6: Avoiding disagreement (반대 회피)

A: That’ s where you live, Florida?

B: That’ s where I was born.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피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려는 전략이다. (16)에서도 B가 Florida는 태어난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17) 전략 7: Presupposing common ground(공감대 부각)

A: Oh this cut hurts awfully, Mom.

B: Yes dear, it hurts terribly, I know.

(17)의 B는 A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A가 얼마나 아픈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둘의 관계가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전략은 청자의 태도나 욕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8) 전략 8: Joke (농담)

a. How about lending me this old heap of junk?

(18)의 a는 청자의 새로운 ‘Cadillac’ 을 보며 위와 같이 농담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지식이 함께 공유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19) 전략 9: Presupposing speaker's knowledge of and concern for if speaker wants (청자의 상황을 알고 있음을 전제)

a. I know you can't bear parties, but this one really be good. do come!

화자는 청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자신이 원하는 바와 부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서로의 관계가 협력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전략이다. (19)의 예문도 청자가 파티를 싫어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말하고 있다.

(20) 전략 10: Offer, promise (제의, 약속)

a. I'll drop by sometime next week.

청자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자가 약속, 제의하는 전략이다.

(21) 전략 11: Being optimistic (낙관적 태도)

- a. I' m sure you won' t mind if I borrow your lawnmower.
- b. I' ve come to borrow a cup of flour.

화자는 청자가 이미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낙관적 태도를 보여주는 전략이다. 청자와 화자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이므로 (21)의 예문처럼 ‘빌려주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라거나 ‘빌리러 왔다’ 의 표현이 더 다정하게 들린다.

(22) 전략 12: Including both Speaker and Hearer in the activity

(행위 속에 상대 포함)

- a. Let' s have a cookies, then. (i.e. 'me')
- b. Let' s stop for a bite. (=I want a bite, so let' s stop.)

대명사 we를 you나 me 대신 사용하여 행위 속에 상대방을 포함시키는 전략이다. (22)의 예문처럼 ‘me’ 대신 we를 사용하여 ‘Let' s’ 로 표현하여 청자도 먹는 행위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

(23) 전략 13: Giving reasons (이유 제시)

- a. Why not lend me your cottage for the weekend?

이유를 묻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23)의 예문과 같이 관습적인 형태의 사용이 많다.

(24) 전략 14: Assuming or asserting reciprocity (상호성 가정)

a. I' ll do X for you if you do Y for me.

이 전략의 예문 (24)에서와 같이 화자는 청자의 행동을 조건으로 한다.

(25) 전략 15: Give gifts to Hearer (goods, sympathy, understanding)

a. I' m sorry to hear that.

청자에게 선물, 혹은 동정심이나 이해심을 표현하는 전략이다.

다. 소극적 공손 전략 (Negative Politeness Strategies)

소극적 공손 전략은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은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을 충족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소극적 공손 전략의 핵심은 존경의 행위이다. 청자와 화자의 친근감이나 동질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적극적 공손 전략과는 달리, 청자와 화자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며 완곡한 표현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 전략에 따른 표현은 한정적이며 집약적이다. 또한 서구의 문화에서는 소극적 공손 전략이 정교하고 관례화되어 있다. 다음은 세분화된 공손 전략의 구현 양상을 살펴보자.

(26) 전략 1: Being conventionally indirect (관용적 간접 표현)

a. Can you pass the salt?

관용적 간접 표현은 (26)의 예에서와 같이 의문문을 통해서 요청의 의도

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청자에게 요청에 대한 거절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관례적인 간접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7) 전략 2: Question or Hedge (질문 or 울타리어)

- a. Would you close the window if I may ask you?
- b. A swing is sort of a joy.

질문이나 울타리어의 사용은 청자에게 기대거나 강요하지 않는 방법이다. 또한 울타리어에 속하는 ‘sort of’ 와 같은 약화어는 화자의 의도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28) 전략 3: Be pessimistic (비관적 입장 표명)

- a. Could/ Would/ Might you do X?
- b. I don't believe that you can do X.

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사용하거나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관적 입장을 드러내는 전략이다. (26)a에서는 조동사 ‘Could’ , ‘would’ , ‘Might’ 을 사용하여 현재 사실과는 다른 가정을, (26)b에서는 ‘don't believe’ 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29) 전략 4: Minimizing the imposition (부담의 최소화)

- a. I just want to ask you if I can borrow a piece of paper.

청자의 체면 위협 행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전략으로 (29)의 예문에서는 ‘just’ 을 사용하여 부담에 대한 한계를 주고, FTA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서 청자가 수락을 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30) 전략 5: Give deference (존경의 표시)

- a. Smith / Dr. Smith
- b. Excuse me, sir. but would you mind if I close the window?

(3)의 예문과 같이 ‘직함+성’의 호칭어나 ‘sir’과 같은 존칭의어 사용으로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다.

(31) 전략 6: Apology (사과)

- a. I' m sure you must be very busy, but...
- b. I don' t want to bother you, but...
- c. I can think of nobody else who could...
- d. Would you forgive me if...

대화 상대자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감정을 상하도록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사과가 있다. 사과 전략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소극적 체면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상대방에게 표현한다. (31)a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을, (31)b는 체면위협행위가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알리고 있다. 또한 (31)c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31)d는 용서를 구하는 전략의 표현이다.

(32) 전략 7: Impersonalize Speaker & Hearer (화자와 청자의 비인칭화)

- a. It would be desirable (for me)...
- b. It would be appreciated if...

- c. One shouldn' t do thing like that...
- e. We regret to inform you...
- f. Could I borrow a something bit of that paper?

이 전략은 (32)a에서와 같이 의미상 주어를 생략하거나 (32)b와 같이 수동태 문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화자와 청자를 비인칭화한다. 또한 (32)c에서 'one' 과 같은 부정대명사를 사용하거나, (32)d에서처럼 'we' 를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 (32)e에서 'that' 을 사용하여 거리를 두는 방법이 사용된다.

(33) 전략 8: State the FTA as a general rule

(FTA를 일반적 규칙으로 진술)

- a. Passengers will please refrain from flushing toilets on the train.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화자가 체면 위협 행위를 원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회 규칙이나 의무, 제약 등으로 진술하는 방법이다. (33)a의 경우도 기차에서의 행동을 규칙과 같이 진술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충족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34) 전략 9: Nominalize (명사화)

- a. You performed well on the examinations and we were favourably impressed.
- b. Your performing well on the examinations impressed us favourably.

- c. Your good performance on the examinations impressed us favourably.

명사화가 될수록 공손 정도가 증가한 표현이 된다. (34)a에서 동사로 사용된 ‘performed’ 가 (34)b에서는 ‘performing’ 으로 (34)c에서는 ‘performance’ 로 명사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a에서 c로 갈수록 공손의 정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 (35) 전략 10: Go on record as incurring a debt, or as not incurring a debt (빚진 것을 언급하거나 갚지 않음을 언급)
- a. I’ ll be never be able to repay you if you...
- b. It wouldn’ t be any trouble; I have to go right by there anyway.

라. 암시적 표현 전략 (off record)

화자의 체면 위협 행위에 대해 청자에게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넘겨줌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Grice의 협력원리를 위반하는 애매한 표현이나 함축, 과장, 모순 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전략이다. 다음은 암시적 표현의 세부 전략이다.

- (36) 전략 1: Giving hints (힌트제공)

- a. It’ s cold in here. (=Shut the window.)

화자는 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하도록 힌트를 주는 방법으로 (36)

의 예문과 같이 여기가 좁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서 청자가 창문을 닫는 행위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이다.

(37) 전략 2: Give association clues (연관된 연상 단서 제공)

- a. My house isn' t very far away... There' s the path that leads to my house. (Please come visit me)

힌트보다 더 거리가 있는 실마리로 대화 참석자들의 공유된 지식과 경험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언급된 내용은 문맥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38) 전략 3: Presuppose (전제)

- a. I washed the car again today.

(38)의 예문에서 화자는 청자와 차를 함께 닦기로 하였을 경우, 화자는 이전의 행위를 전제로 비평을 내포한다.

(39) 전략 4: Understatement (축소발언)

A: How do you like Josephine' s new haircut?

B: It' s all right. (I don' t particularly like it.)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그 보다 적은 정보를 제공하여 체면 손상을 피하는 전략이다.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여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

(40) 전략 5: Overstate (과장)

- a. You never do the washing up.
- b. Why are you always smoking?

상황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필요 이상을 제공함으로써 함축을 전달한다.

(41) 전략 6: Using tautologies (항진 명제 사용)

- a. War is war.
- b. Boys will be boys.

항진 명제 사용 전략은 동일한 의미의 어휘를 반복하여 명백한 진실을 표현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41)a는 전쟁에서 발생하는 결과는 명백한 것이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

(42) 전략 7: Using contradictions (모순 명제 사용)

- A: Are you upset about that?
- B: Well, yes and no. / I am and I'm not.

상반된 명제를 제시하여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으로 (42)의 예문과 같이 'yes' 와 'no' 의 상반된 대답을 동시에 제공하여 청자가 타협점을 찾아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

(43) 전략 8: Being sarcasm. (반어적 표현)

- a. John is a real genius.
- (after John has just done twenty stupid things in a row)

화자의 의도와 반대로 발화하여 질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43)의 예문과 같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John에게 천재라고 반의적으로 표현하면서 화자의 의도를 암시적으로 전달한다.

(44) 전략 9: Using metaphors (은유의 사용)

a. Harry' s a real fish.

(=He drinks/swims/is slimy/is cold blooded like a fish.)

명제 자체는 사실이 아니므로 질의 규칙 위배이다. 그러나 (44)의 예문에서와 같이 Harry가 물고기는 아니지만 물고기와 같은 비슷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화자는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함축의 의미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5) 전략 10: Using rhetorical questions (수사 의문문 사용)

a. How was I to know... ? (=I wasn' t)

b. What can I say/ (=Nothing, it' s so bad)

대답을 유도하지 않는 의문문은 (45)의 예문들과 같이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한다.

(46) 전략 11: Being ambiguous (중의성)

a. John' s pretty sharp / smooth cooks.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의 발화는 의미에 따라 칭찬도 될 수 있고 모욕도 될 수 있는 전략이다.

(47) 전략 12: Being Vague (모호성)

- a. Perhaps someone did something naughty.

체면 위협 행위에 대한 대상과 행위를 모호하게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전략이다.

(48) 전략 13: Over-generalize (과일반화)

- a. He who laughs last laughs longest.

청자는 일반 규칙의 적용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이 전략에 해당하는 것에는 속담이 있다.

(49) 전략 14: Displace Hearer (청자대치)

- a. Excuse me, but would you pass the stapler, Ann.

청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여 발화하는 전략으로 (49)의 예문처럼 스테플러 가까이에 있는 상사에게 건네달라고 요청하기 곤란하다면 상사보다 체면 손상이 낮은 비서 'Ann'에게 청하여 상사의 체면손상을 덜어줄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50) 전략 15: Being incomplete, using ellipsis (미완성 발화, 생략의 사용)

- a. Well, if one leaves one' s tea on the wobbly table...
b. Well, I ddidn' t see you...

발화를 마무리 하지 않고 생략하여 체면 손상 행위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함축으로 표현하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Brown & Levinson의 4가지 전략은 대화의 맥락과 대화 참여자의 관계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화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전략이 더 자주 선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Lakoff나 Leech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수평적인 서구 사회와 달리 수직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지위, 신분 등에 의해 공손성이 구별된다. 따라서 Brown & Levinson의 낮은 타인에게 공손표현이 사용된다는 주장은 제약성이 있으며 한국 사회의 특이점에 대한 설명을 포괄하지 못한다.

2.3 한국어 정중장치

한국어에서 정중성의 의미는 ‘겸손’과 ‘공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윗사람과 아랫사람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경어체는 정중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발달해 있다. 이익섭과 임홍빈(1983)은 경어체를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로 예우하느냐, 얼마나 높여 대우하고 낮추어 대우하는냐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어체와 같은 높임 표현은 높임 어휘를 포함한 문법적 범주로 구분하고 공손 표현은 화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형식적인 차원에서 한국어의 정중 장치를 분류한 표는 다음과 같다. 문금현(2017)이 문법과 어휘, 화용적 차원에서 한국어의 정중 장치를 분류한 것을 다음의 표로 재구성하였다.

<표 4> 한국어 정중 장치 분류

분류기준		공손표현		예시
경어	문법	조사	주격	할머니 <u>께서</u> 가신다.
			여격	선생님 <u>께</u> 드렸다.
			보조사	저기요, 제가요, 거기가요 좋아요
		선어말 어미	-시-	할아버지 <u>께서</u> 가 <u>시</u> 네요.
			-겠-	그렇 <u>겠</u> 지요. 바쁘 <u>겠</u> 지요. ~것이 좋 <u>겠</u> 네요.
		연결		지금은 바빠서 힘들어.
		종결		제가 갈게요. 제가 가 <u>겠</u> 습니다.
	어휘	호칭어	-님	부모 <u>님</u> , 형수 <u>님</u> , 과장 <u>님</u>
		겸양 /높임	(대)명사	저, 연세, 말씀, 진지
			동사	뵙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드리다
		보조 의미 추가	강조	먹 <u>어</u> 봐, 보내 <u>줘</u> , 정리해 <u>줘</u>
			희망	~ <u>고</u> 싶다, ~으면 좋 <u>겠</u> 다, ~ 기 바란 <u>다</u>
			추측	~일 것 같 <u>아</u> 요/걸 <u>요</u> /텐데 <u>요</u>
화용	간접 표현	요청표현		~ <u>해</u> 주세요<해 줄래요?><해 주실래요?
		거절표현		못 가요 <다음에 꼭 같이 가줄게요 <죄송하지만 같이 못 가요
	의사타진 표현			~해도 괜찮을까요? ~해도 될까요?
	부정의문문			같이 <u>안</u> 가실래요?/사기지 <u>않</u> 을래요?
	겸손 표현	빈말인사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등
		양보		<u>덕분에</u> 요, 제가 오히려 더 고맙 <u>조</u>
	울타 리어	모호		<u>글쎄</u> 요
		사과		<u>실례</u> 합니다만(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주저		<u>저기</u> 요(있잖아요)

2.4 화용능력 향상을 위한 영상의 활용

영어 교재에 나타난 표현을 암기하는 방식 위주의 학습법으로 인해 실제 존재하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영어 회화를 다루고 있는 교재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의 표현들이 대화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스토리와 맥락이 있는 영화를 활용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자원 2005)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화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들로 이루어져있는 진정성(authenticity)이 있는 대화로 실제 환경에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자원 2005)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영화화된 문학 작품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좋은 시청각 교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반복적 학습을 통해 영어 자신감과 실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현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

Wood(1995;1997) 또한 언어와 함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영화는 학습자들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토론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templeski & Tomalin, 2001)

Ⅲ. 영상을 활용한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 사용 양상

모든 문화권에서 적절한 정중성을 표현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계유지라는 보편성을 지닌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문화권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정중성은 경어법과 같은 언어 규범을 사용하고, 사회문화적 규범이 관습화되어 있다(Ide, 1982). 화자와 상대방의 관계 즉, 나이나 신분 등에 따라 적절한 정중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영어권에서 정중성의 목적은 상대와의 충돌을 줄이고 원활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어 학습자는 원만한 상호 관계 유지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 목표 언어의 문화권에서 적절한 정중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 정중 장치를 사용하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인 학습자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영어 정중 장치는 무엇인지, 번역시 정중성 정도가 고려되었는지도 분석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또한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 적절한 영어 정중 장치의 사용은 대화 상대자와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1 연구 도구

본 연구는 2017년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의 통번역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 31명의 기말 과제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높은 수준의 통번역학 강의로 인하여 수강하는 학생들도 높은 단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 영어 능숙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정중성 사용양상을 알아보고자 한 것은 정중성의 표현이 ‘언어사용’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중성을 언어의 숙달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명료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법적 지식의 습득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를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언어사용 능력, 즉 정중성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언어지식’의 습득이 충분히 이루어진 수준의 학생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영화 「건축학개론(2012)」에서 2~3분 정도에 해당하는 장면의 한국어 대본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는 영화의 일부이지만 학생들은 영화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대화 참가자들의 관계는 물론 전체 영화의 맥락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였다. 아래의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왼쪽에 한국어 대사를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한국어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였다.

<그림 3> 연구 자료로 사용한 번역 과제

수지	다 알고 있었던 말이지? 그걸 알고 나한테 접근했던 말이지?	SJ	Because already knew all about me // you came back to me, huh?
홍팀장	야 수지야, 도청기,	H	The bug!
원석	붙여이지.	WS	The bug
재준	사람했었다. 진심으로	JJ	I loved you // Sincerely!
수지	진짜로 미워했거야... 영원히	SJ	I will never forgive you 나 미워하는 걸로써 지금 생이 되던 내가 죽은 조현이 애인이 때문에 '물러버 살면서'도 바꾸겠다.
수지	집		
수지	예 성준씨, 죄송해서 말이 꼬이는 바람에 연락도 못 드리고 지금요? 알았어요, 그러고 갈게요	SJ	I'm sorry I was too busy. Seonjun은 지금이 언제 나갔었지, 몇몇에서는 이 때가 재연이었지. You mean now? I'll be there.
홍팀장	이 호텔 "Script와 Video가 다다"는 걸까? 왜냐하면 수장은!		"자랑"이요.
원석	접촉했습니다. 누군가와 핸드폰 통화하고 나가는 중입니다.	A	She contacted someone // now she's moving.
원석	휴대폰 추적했어?	WS	Who was she talking to? → 추적하는 건데 핸드폰의 위치도 알고 있지. 지금 홍팀에게 걸려 주수 같이 제법
동료	추적이 안 되는 휴대폰입니다.	A	Her phone is untrackable. 일단에서 '나랑이랑'을 끝까지 내몰라 이어서 온 것뿐이야.
원석	프로구마, 일단 여자 잡고 백작 끌어내지. 8팀 가동해.	WS	Denny pro is she. She is the first target, then the Count. Move out.
양지	비디오 / 밤		"Denny"으로 수치를 낮추고 있다. 장자는 끝까지 끝이 생기고, 귀에서 장자는 화면이 보여 때문에 +영역+영역한 조현보에
세균	물건은 200프로 보장합니다. 그럼요. 최종한데 현금만 거래하는데요. 30분 후에 저번에 알려드린 거까지 끝	S	It's 200% real for sure. I'm sorry but only cash sir. See you there in 30 mins.
홍팀장	(무전) 손님 청사 시작한다. 물건 확보해	H	The Customer is moving. Catch him
으숙한 골목 / 밤			
세균	전화하신 분?	S	Are you the person on the phone?
남자	질문 맞죠?	M	Can I believe you? — "물건이 확실한 걸까? 내가 감한다. 그와 같은 대답이 있었으면 "You sure it's real?" "같이 확인한 건지 자네도 더 조심하라."
재준	러시아 내파야. 레드 1은 A	JJ	Russia, Mafia, Red. '1' means 'A'
해외팀 회의실 / 밤			
오실장	다친 사람 없어?	O	Everybody alright?
원석	안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WS	Nobody is alright, sir.

과제로 주어진 장면의 내용은 비즈니스 상황으로 등장인물들은 상사와 부하직원, 고객과 직원으로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특히 정중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영화대본 자료는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용이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3.2 자료 수집

통번역학 강의를 듣는 31명으로부터 과제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를 준비하

였다. 번역 과제에 사용된 영화의 장면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일부분으로 상하 관계에 따른 공손성 장치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먼저 과제의 자료로 제공되었던 한국 영화 대본에서 한국어 정중 장치가 사용된 15문장을 선정하였다. 이는 한영 번역을 할 때도 영어 정중 장치의 사용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정된 15문장은 2장에서 언급한 한국어 정중 장치의 분류에 따라 문법, 어휘, 화용의 3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다시 문장마다 사용된 세부 정중 장치로 분류하였다. 문법은 종결어미, 선어말 어미, 복수주어로, 어휘는 대명사와 동사로 나누고 추측을 나타내는 어휘도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화용적인 측면에서는 울타리어⁷⁾와 의사타진으로 분류하였다. 선정된 15개의 영화 대사를 크게 3가지 범주에 따라 영화 속 한국어 대사를 분류하였는데 이를 <표 5>에 정리하였다.

7) 울타리어 (hedge)는 Fraser(1975)의 Hedged performatives에서 유래한 용어로 화자 자신의 발화에 책임을 약화시키고자 사용하는 것으로 미확정적 태도를 표현한다. 양태소나 어휘, 구나 문장 등이 있다.

<표 5> 한국어 정중 장치에 따른 영화 속 한국어 대사 분류

정중장치	세부 정중장치	영화 대본 대사
문법	종결	왜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못 합니다.
	선어말 어미	나가주시죠.
	복수주어	우리도 요청하죠.
어휘	(대) 명사	접니다. 과장님.(+호칭어)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전화하신 분 ?
	동사	거기서 뵙죠.
	추측	이재준이 우리를 유인하고 수지를 친 것 같은데요.
화용	울타리어	죄송해서 일이 꼬이는 바람에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한데 현금만 거래하는데요.
		좀 쉬라고 그래.
	의사타진	괜찮겠습니까?

가. 문법

정중성을 나타내기 위한 문법 장치들 중 영화 속에서 찾아낸 문장에서 사용된 문법 장치는 크게 3가지로 격식체 종결어미, 선어말 어미, 1인칭 주

어의 사용이 있다.

우선, 정중성을 나타내는 문법 장치로 격식체 종결의미가 포함된 문장을 살펴보자. 종결의미가 격식체 문장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발화의 내용은 정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문장의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이 대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도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비난이나 ‘못 합니다.’와 같이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는 표현은 직장에서는 쉽지 않은 발화이다. 영화 속 한국어 문장에서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는 정중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처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정중 장치를 사용하여 번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여 선택한 문장이다.

다음의 문법 장치는 선어말 어미 ‘-시-’의 사용으로 이는 주체에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낸다. 영화 속에서 사용된 문장은 ‘나가주시죠’로 정중성을 나타내기 위해 문법적 장치를 이용하였지만 내용상 정중한 표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상황은 화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요청이므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도록 번역에서 영어 정중 장치가 사용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문법 장치로 화자를 포함한 1인칭 주어의 사용이다. 화자를 포함한 복수 주어의 사용은 적극적 체면을 충족하는 전략으로 FTA(Face Threatening Act)에 대한 보상 방법이다. ‘우리’의 사용은 영어에서 정중성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번역시 영어 정중 장치의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발화가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제안을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다른 이유가 되었다.

나. 어휘

어휘는 명사와 동사로 분류하고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어휘를 추가하였다. 우선 명사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자. 높임 어휘 대명사를 사용한 한국어 문장은 4개이지만 사용된 어휘는 ‘저’와 ‘자네’ 두 가지이다. 우선, ‘저’는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에게 공경을 드러내는 높임 어휘이고 ‘제가’는 ‘저’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로 ‘저’와 함께 분류할 수 있다. ‘저’와 ‘제가’는 영어 ‘I’로 번역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저’에 담긴 공경의 의미까지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중성이 필요한 대화의 흐름 속에서 영어 정중성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선정하였다.

한국어 의존명사 ‘분’은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이 또한 영어 ‘you’로 번역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 속 비즈니스 상황에서 고객에게 정중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영어 번역문에서의 정중 장치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는 높임어휘 동사를 살펴보자. ‘뵙죠’는 ‘보다’의 겸양어로 영화 속에서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하는 대사에 포함되어 있다. 높임 어휘의 사용과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영어 번역시에도 정중성을 고려할 수 있어 선택된 문장이다.

추측 의미의 추가나 간접성이 정중성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같은데요’는 정중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상급자에게 확정되지 않는 전달하는 상황에서 영어 번역 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살펴보고자 선정된 대사이다.

다. 화용

화용적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정중 장치가 사용되었는데, 울타리어(hedge)와 의사타진이다.

울타리어는 발화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정중성을 드러낼 수 있다. 15개의 문장 중 ‘죄송한데’와 ‘좀’ 두 가지의 울타리어가 사용되었다. 먼저, ‘죄송해서’, ‘죄송한데’를 사용한 두 문장은 이를 통하여 사과하거나 거절에 대해 상대방의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번역 시 영어 정중 장치의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울타리어 ‘좀’은 지시의 양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영화 속 장면은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통해 또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시의 내용을 제 3자에게 전달하라는 명령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제 3자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의 발화이고 ‘좀’이라는 울타리어 또한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영어 정중 장치를 사용하여 번역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의사타진의 표현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의중을 물어보는 것으로 정중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상사의 의견에 대한 반응으로 걱정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번역에서 정중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전략을 살펴보고자 선택하였다.

3.3 연구 분석 및 결과

한국인의 영어 정중 장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영화의 일부분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선택되어진 15문장에 대한 영어 번역 과제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번역 문장에서 정중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골라내어 분류하였다. 과제물은 31개로 각 한국어 문장에 대해 31개의 영어 번역문에서 사용된 정중 장치를 살펴보자.

가. 문법

정중성을 나타내는 문법장치 중 격식체 종결어미의 영어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1

한국어 정중장치		영어 정중장치		example
문 법	종 결 어 미	간접화용	55% (17/31)	왜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There wasn' t his fault.
		격식호칭	16% (5/31)	못합니다. I can' t, sir .
		울타리어	16% (5/31)	Sorry , I can' t.

‘~니까?’의 격식체 종결 어미의 영어 번역은 55%가 간접화용을 사용하여 평서문으로 표현하였다. 비난의 의도가 담긴 문장으로 비난의 상대는 상사이다보니 한국어의 직접적인 비난의 형태를 영어로 번역할 때 에게 신입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There wasn' t his fault’와 같이 ‘막내는 잘못이 없다’와 같이 직접 상관에 대한 비난이 드러나지 않은 표현으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못합니다.’는 상사의 지시에 대한 거절의 의미이므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한국어 원문에는 없는 격식호칭 ‘sir’를 사용하여 정중성을 나타내고자 한 경우가 16%이다. 또한 ‘sorry’와 같은 울타리어를 사용한 경우도 16%로 나타났다.

한국어 원문에서 두 문장 모두 격식체를 사용하였지만 정중하지 않은 표현임을 앞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나 영어로 번역할 때는 원문에서는 없는 정중 장치를 사용하여 정중함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어 번역시 정중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중함을 나타내는 문법장치로 선어말어미와 복수주어를 사용한 문장의 영어 번역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7>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2

한국어 정중장치		영어 정중장치		example
문법	선어말어미	please + 명령문 격식호칭 의문문	86%(27/31) 6%(2/31) 6%(2/31)	나가주시죠. Please , go out. Go outside, sir . Will you go out?
	복수주어	의문문	6%(2/31)	우리도 요청하죠. How about requesting identity?

한국어 선어말어미 ‘-시-’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84%(26명)의 학생들이 ‘please+명령문’의 형태로 번역하였다. ‘please’의 사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은 요청 상황에서 ‘please’의 사용이 가장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ir’과 같은 격식 호칭을 사용한 경우가 6% 있었고, 명령문보다는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Will you~?’와 같이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으로 번역한 사례도 6%로 나타났다.

복수주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도 그대로 ‘we’나 ‘let’s’의 형태로 나

타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번역능력과 구분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의 학생이 요청의 대상이 상사인 점을 감안하여 더 정중한 의문문의 형태로 번역하여 상황을 반영하였다.

나. 어휘

한국어의 어휘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정중장치로 높임어휘를 들 수 있다. 크게 명사와 동사로 나누어 높임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한 정중성의 의미가 영어로 번역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대명사 ‘저’의 번역을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8>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3

한국어 정중장치		영어 정중장치		example
어휘	대명사	격식호칭	90% (28/31)	접니다. It' s me, sir .
		비인칭화	4% (1/31)	제가 다 책임집니다. It' s my responsibility.
		격식호칭	4% (1/31)	I' m in charge, sir .

한국어 높임 대명사인 ‘저’와 ‘제’는 영어로 번역하였을 때 모두 ‘I’로 번역되어 한국어 어휘에 나타난 정중함의 번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영어에서 다른 정중장치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접니다’의 문장에서는 90%가 격식 호칭인 ‘sir’을 활용하여 정중성

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문장이 짧다보니 다른 정중장치의 사용은 보이지 않았으나 격식호칭을 사용하여 정중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반영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문장에서 사용된 ‘제’도 영어 ‘I’로 번역되므로 다른 정중 장치의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어 원문에는 없는 격식호칭 ‘sir’을 추가하여 정중성을 나타낸 경우가 4% 있었으며, 주어를 ‘I’가 아닌 ‘it’을 사용하여 비인칭화함으로써 정중성을 표현하고자 한 경우도 4% 있었다. 영어 번역문에서 역시 조동사의 사용이 많았으나 번역능력과 구분하기 위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로 사용된 조동사는 ‘will’과 ‘can’으로 주어의 의지와 능력을 나타낸 의미로 사용되어 정중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하였다.

<표 9>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4

한국어 정중장치		영어 정중장치		example
어휘	명사	격식체	45%(14/31)	전화하신 분 ?
		부가의문문	10%(3/31)	Are you the person who call me? You called me, right?
		울타리어	4%(1/31)	Excuse me , are you...?

위의 <표 9>는 한국어 높임어휘 ‘분’에 대한 번역 양상을 나타낸 표이다. ‘분’ 역시 영어로 ‘you’로 번역될 수 있으나 대화에서 정중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45%가 완전한 문장의 격식체로 정중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10%는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거나 ‘excuse me’와 같은 울타리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중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한국어 높임 어휘 중 동사와 추측의 의미가 있는 어휘의 영어 정중성 번역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10>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5

한국어 정중장치		영어 정중장치		example
어휘	동사	we-form 조동사	52%(16/31) 13%(4/31)	거기서 뵙 죠. Let' s meet there. I' ll be there inn 30 minutes.
	추측	논평절 양상부사 조동사	64% (20/31) 16% (5/31) 10% (3/31)	이재준이 우리를 유인하고 수지를 친 것 같은데요 . I think Jaejun lured us and attacked Suji. Maybe he is used to distract us. Lee might have cheated on us and hit Suji.

한국어 높임어휘 ‘뵙죠’는 52%가 ‘We-from’으로 번역이 되었다. 청유형 문장이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let’ s form’을 사용하여 ‘Let’ s meet ~ ‘과 같은 형태의 문장으로 번역하거나, ‘We’를 주어로 하여 번역한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 13%가 ‘will’과 같은 조동사를 사용하여 정중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국어 추측 표현은 영어 번역에서 64%가 논평절로 번역되었다. 다음으로 16%가 양상 부사를, 10%가 조동사를 통해 정중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논평절과 양상 부사는 모두 울타리어에 속하는 표현으로 화자의 미확정적 태도가 언내표적 힘을 약화시켜 정중성을 드러낸다. 영어 번역에 사용된 논평절의 예로 ‘I think’와 ‘I guess’가 있으며 양상 부사는 ‘maybe’를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might’을 이용하여 추측의 완곡 표현으로 정중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다. 화용

한국어 문장에서 사용된 울타리어의 사용은 영어 번역에서도 그대로 정중장치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결과를 <표 11>에서 살펴보자.

<표 11>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6

한국어 정중장치		영어 정중장치		example
화 용	울 타 리 어	울타리어 + 이유有	65% (20/31)	죄송해서 일이 꼬이는 바람에 연락도 못 드리고 I' m sorry I didn' t call you because of my work.
		울타리어 +이유無	25% (8/31)	I' m sorry I didn' t call you.
		울타리어	58%(18/31)	죄송한데 현금만 거래하는데요. Sorry only cash.
		we-form	29%(9/31)	We accept cash only.
		격식호칭	4%(1/31)	Sorry only for cash, sir.
		수동태	4%(1/31)	I' m sorry but only cash is accepted.
		명령문	52%(16/31)	좀 쉬라고 그래. Tell her to take a rest.
		불변화사	4%(1/31)	Tell her to get some rest.
		조동사	4%(1/31)	She can take a rest.

한국어 울타리어 ‘죄송해서’ 는 90%가 한국어 원문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sorry’ 나 ‘I' m sorry’ 의 영어 울타리어로 번역되었다. 이외에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이유 설명까지 설명하고 있는 문장은 전체 65%로 조사되었다. ‘Sorry, I couldn' t contact you because I

was busy.’와 같이 사과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에 이유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Sorry for not contacting you.’ 처럼 왜 연락을 못했는지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25% 있었다.

거절의 표현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한국어 ‘죄송한데’의 번역은 하나의 정중장치만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이 항목에서는 중복으로 체크하였다. 원문과 같이 울타리어 ‘sorry’의 사용이 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we-form’의 사용이 29%, ‘sir’이라는 격식 호칭의 사용이 4%, 수동태의 사용이 4%로 나타났다. ‘No’라고 거절하지 않고 ‘Sorry’로 문장을 시작하여 한국어 문장과 같은 정중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No, only cash.’라고 번역하여 상대방의 제안에 직접적으로 ‘No’로 직접적으로 거절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울타리어 ‘좀’의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간접명령문을 사용하여 번역한 경우가 52%(16개)로 ‘Tell her~’이나 ‘Say her~’과 같이 번역하였다. 양적 부담을 덜어주는 울타리어의 사용은 4%, 조동사를 사용한 경우도 4%로 나타났다. 조동사의 사용은 ‘쉬어도 좋다’는 허락의 의미의 조동사 ‘can’을 사용하여 평서문으로 번역하였다. 35%가 정중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영화에서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풀어 번역한 것이었다. 불편한 내용을 함축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번역되어 번역시 정중성에 대한 고려보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 영어 정중장치 사용 양상 7

한국어 정중장치		영어 정중장치		example
화 용	의 사 타 진	조동사	19%(6/31)	괜찮겠습니까? Will it be ok?
		if절	4%(1/31)	Is it okay if they know about us?
		격식호칭	4%(1/31)	Is it okay, sir ?
		양상부사	4%(1/31)	Maybe they know us, is it ok?

의사타진을 나타내는 문장의 영어 번역문의 형태는 모두가 의문문으로 그대로 번역되어 상대의 의사에 대한 질문함으로써 정중성을 표현하려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will’ 이나 ‘would’ 와 같은 조동사의 사용이 19%로 가장 많았다. if절을 사용한 경우가 4%, 격식호칭 ‘sir’ 을 사용한 경우와 양상 부사 ‘maybe’ 를 사용한 경우도 각각 4%로 다양하게 정중의 의도를 전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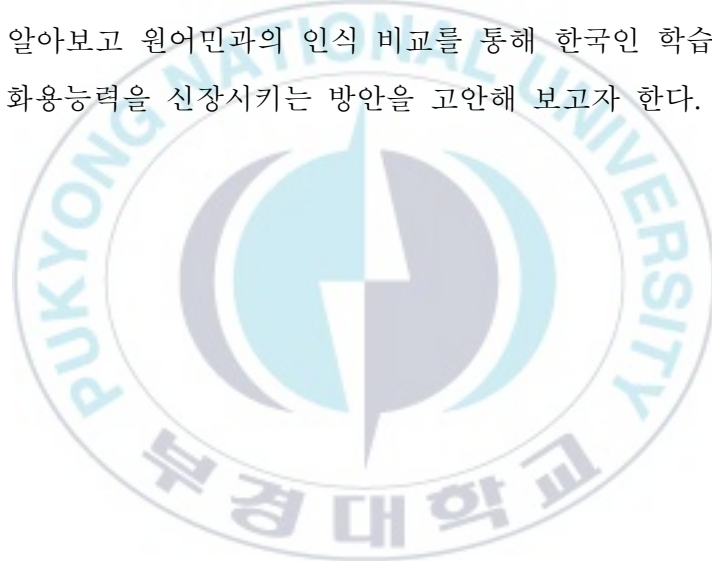
15개의 문장의 번역문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한국인 학습자가 원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번역 시에 적절한 정중 장치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영어의 높임 어휘는 한국어에 비해 과소부호화(under-code)되어 있어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어렵지만 문장의 형태 변화, 조동사, 울타리어의 사용 등으로 화용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 학습자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정중장치는 조동사와 ‘we - form’ 의 사용이다. 또한 요청 표현에서 ‘please’ 의 사용도 매우 익숙한 정중 장치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사물 주어의 사용이나 수동태를 활용한 전략은 구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정중 장치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나가주시죠’와 같은 대사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please’를 첨가하는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대화의 상대가 상급자인 것을 고려해도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 한국인 학습자는 주로 몇 가지의 패턴만을 사용하여 정중성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아 정중 장치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한국인 학습자가 정중 장치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없다는 점은 상황에 따라 의사소통에서 적절한 정중성을 표현하지 못하여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는 설문을 통해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 인식을 알아보고 원어민과의 인식 비교를 통해 한국인 학습자의 정중성과 관련된 화용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고안해 보고자 한다.



IV. 영상을 활용한 한국인과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 양상

4.1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 인식 양상

4.1.1 연구 과제 및 연구 대상

3장에서 한국인 학습자의 정중 장치의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정중 장치의 사용이 다양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황에 따라 정중성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영어 정중성 장치들 중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치들은 어떤 것이며,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정중성 장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앞 3장에서 사용하였던 영어 번역 자료를 사용하였다. 영어로 번역된 자료에서 한국인이 사용한 정중 장치 10개 골라내고 각각의 장치마다 비교 문장을 추가하여 a, b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10개의 비교 set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화로 맥락적 배경 설명도 함께 추가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영어 정중성 장치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모두 57명으로 부산 소재 2년제, 4년제 대학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박사학위 소지자도 5명도 포함되어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은 5년 이상이며 82%의 선생님들은 일 년 이상 해외 유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1.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살펴볼 정중 장치는 모두 10개로 정중 장치의 사용에 따라 크게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4개의 항목은 문장형식, 격식체, 조동사, 이유 및 설명이다. 각 항목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 정중 장치로 다시 한번 더 분류하여 아래의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 영어 정중장치 분류

정중장치	세부 정중장치	예
문장 형식	간접표현	He knows basically nothing. (vs. Why do you blame on him?)
	의문문	Will you go out? (vs. Please, go out.)
	평서문	She can take a rest. (vs. Tell her to get some rest.)
격식체	수동태	I' m sorry but only cash is accepted . (vs. I' m sorry, we accept cash only.)
	어휘	You should consider your family. You should think of your family.
		We can ask for their identification. We can demand their identification.
	사물 주어	Companies need people like you. (vs. We need people like you.)
	복수 주어	We can meet at the place. (vs. I' ll be there.)
조동사		Will it be okay? (vs. Is it okay?)
이유 및 설명		Sorry I couldn' t call because things got complicated . (vs. Sorry I had no time to call you.)

문장 형식에는 간접표현과 직접표현, Please 명령문과 의문문, 명령문과 평서문의 3가지 세부 정중 장치의 비교를 통해 문장 형태에 따른 정중성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격식체의 세부 정중 장치로 수동태와 어휘, 사물 주

어와 화자를 포함한 복수 주어 ‘we’의 4가지 문항으로 분류하였으며 조동사와 이유 및 설명은 각각 1문항씩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가. 문장 형식

설문지는 이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된 정중성 구현 장치와 그에 따른 세부장치를 바탕으로 10개의 항목에 대한 비교 set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10가지 항목은 모두 비즈니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맥락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발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각 항목별로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주어진 두 개의 문장에서 더욱 정중하게 인식되는 것을 고르도록 지시되었다.

① 간접표현

응답자들은 세부항목 중 간접표현이 직접표현과 비교하여 정중성의 정도가 차이를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맥락적 배경은 비난의 상황으로 하급자가 상사를 향한 발화의 표현이다. 하급자의 비난이 상사의 체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간접표현과 직접표현 중 어떤 표현을 더 정중하다고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② 의문문

문장 형식 중 두 번째 세부 정중장치로 Please 명령문과 의문문의 세분 정중 장치에 대한 비교 set이다. 문장으로 상급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므로 사용된 전략의 정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Blum-Kulla(1987)의 요청 전략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Blum-Kulla의 요청의 전략 유형

- a. mood derivable : Clean up the mess.
- b. obligation statements : You' ll have to move that car.
- c. want statements
: I really wish you' d stop bothering me.
- d. performatives : I' m asking you to clean up the mess.
- e. suggestory formulae : How about cleaning up?
- f. hedged performatives
: I would like to ask you to give your presentation a week earlier than scheduled.
- g. strong hints : You have left the kitchen in a right mess.
- h. mild hints
: I am a nun in response to a persistent hassler.
- i. query preparatory
: Could you clean up the kitchen, please?
: Would you mind moving your car?

비교 set의 'please' 를 동반한 명령문의 형태는 mood derivable에 속하고, 의문문의 형태는 예비조건에 대한 의문문(query preparatory)에 해당하는 문장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가장 정중하지 않은 표현의 문장은 mood derivable로 가장 직접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영어 정중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다.

③ 평서문

문장 형식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명령문과 평서문의 비교이다. 상사

가 직원에게 하는 일종의 허락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제 3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Tell her~’ 과 같이 명령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의 명령문이다. 반면 비교 문장의 평서문은 허락의 의미가 있는 조동사를 ‘can’ 을 활용하고 있는 문장을 제시하였다.

나. 격식체

정중성의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청자의 영역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사용한다. 이러한 비접근성을 나타내는 장치 중 하나가 격식체이다. Fraser(1990)은 격식체의 사용이 19세기에는 정중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격식체의 세부 정중 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격식적 호칭, 격식체, 간접화행, 양태소, 울타리어, 존대법, 겸양어 및 담화 표지 등이 있다. (Brown & Levinson, 1987)

① 수동태

수동태의 사용은 정중 장치 중 격식체의 세부 정중 장치이다. 수동태와 능동태 모두 표현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표현이 정중하다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하였다. 발화 상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대화로 비교 문장과 함께 상황을 제시하였다. Quirk et al.(1985)이 ‘formal’ 이라고 표시한 문장들의 특성에 따라 홍병호(1992)⁸⁾가 다시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수동태의 사용은 청자나 화자가 직접적으로 발화하였다

8) 홍병호 (1992:35)의 ‘formal’ 로 표시된 Quirk et al.(1985)의 문장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의 여덟가지로 분류하였다. 1. 화제의 객관성으로 인한 청자나 화자의 언급 회피. 2. 수동태나 우회적인 표현. 3. 동작의 명사화 사용. 4. that절. 5. 양상 조동사 may의 사용. 6. 가정법 사용. 7. 문법성. 8. 긴 문장의 사용.

는 것을 피함으로써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그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비접근성 정중 장치라고 하였다.

② 격식체 어휘

다음은 어휘와 관련된 격식체 비교로 ‘consider’ 과 ‘think of’ 에 대한 영어 정중성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시된 발화의 상황은 상사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으로 충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두 어휘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52) a. consider : to care about or respect other people or their feelings and wishes (Online Cambridge Dictionary)

b. think of : to show consideration for people and pay attention to their needs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52)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consider’ 은 다른 사람이나 그들의 감정이나 소망 등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think of’ 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ask for’ 와 ‘demand’ 의 사용에 대한 영어 정중성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청의 의도가 있는 문장에서 어휘의 선택은 중요할 수 있다. 요청이 요구의 의미로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요청시의 어휘 선택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된 set이다. 두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 (53) a. ask for : to say that you want somebody to give you something (Oxford Phrasal Verbs Dictionary for Learners of English)
- b. demand : to ask for something forcefully, in a way that shows that you do not expect to be refused (Online Cambridge Dictionary)

사전적 설명으로 ‘ask for’ 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달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demand’ 는 어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으로 상대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Brown & Levinson(1987)의 소극적 공손 전략 중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세부 전략을 고려하면 어휘의 의미에 따라 정중 장치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③ 사물 주어

사물 주어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인칭주어와 사물 주어의 영어 정중성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성된 항목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문장의 문장과 동사의 형태를 일치시킨 후 문장을 구성하였다. 사물 주어 역시 격식체의 세부 정중 장치로 화자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대화 구성원들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장치이다. 발화의 상황은 상사가 직원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라고 격려해 주는 의미로 제시되고 있다.

④ 복수 주어

화자를 내포하고 있는 복수주어 ‘We’ 의 사용에 대한 영어 정중성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비교 문장으로 단수 주어를 사용한 문장을 함께 제시

하였다. 화자를 포함한 복수 주어의 사용은 격식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비접근성 정중 장치 중 하나이다.

다. 조동사

조동사는 양상(modality)을 보여주는 장치들 중 하나로 발화 명제에 대해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Quirk et al., 1985: 219) 이는 다시 내적 양상(intrinsic modality)과 외적 양상 (extrinsic modality)로 구분된다.⁹⁾ Perkins (1983)은 이중 내적 양상을 6가지 의미로 분류하였는데 가설성, 과거성, 격식성, 정중성, 미확정성, 간접성이 이에 속한다. 조동사는 정중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조동사의 사용 여부에 대한 영어 정중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비교를 위해 문장의 형태와 주어는 일치하였다. 비교 문장 모두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it’ 을 주어로 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라. 이유 및 설명

이유 설명이 있는가에 대한 비교 set이다. 주어진 발화 상황은 사과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때 적절한 이유 설명의 동반 유무가 상대에 대한 존

-
- 9) a. Intrinsic Modality : Those such as ‘permission’, ‘obligation’, and ‘volition’ which involve some kind of intrinsic human control over events.
b. Extrinsic Modality : Those such as ‘possibility’, ‘necessity’, and ‘prediction’, which do not primarily involve human control of events, but do typically involve human judgement of what is or is not likely to happen.

중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반영한 비교 set를 구성하였다. 이유 제시(Giving reasons)는 Brown & Levinson (1987)의 소극적 공손 전략의 세부 전략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문항은 이에 근거하여 10개의 구성에 포함되었다.

4.1.3 분석 및 결과

정중 장치의 종류에 따라 구성된 10개의 비교 set로 영어 정중 장치 사용의 적절성 인식을 알아보고자 이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2개의 문장에서 더욱 정중한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여 드러난 설문 대상자들의 정중성 인식을 살펴보자. 다음은 57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설문의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14> 한국인의 영어 정중 장치 사용의 적절성 인식 양상

정중장치	세부 정중장치		선택 횟수	합계
문장 형식	직접표현 간접표현		14 (25%) 43 (75%)	57 (100%)
	please 명령문 의문문		13 (23%) 44 (77%)	57 (100%)
	명령문 평서문		27 (47%) 30 (53%)	57 (100%)
격식체	수동태 능동태		43 (75%) 14 (25%)	57 (100%)
	어휘	consider think of	44 (77%) 13 (23%)	57 (100%)
		ask for demand	36 (63%) 21 (37%)	57 (100%)
	사물 주어 인칭주어		19 (33%) 38 (67%)	57 (100%)
	복수 주어 단수 주어		53 (93%) 4 (7%)	57 (100%)
조동사	조동사 사용 有 조동사 사용 無		54 (95%) 3 (5%)	57 (100%)
이유 및 설명	이유 설명 有 이유 설명 無		50 (89%) 5 (9%)	57 (100%)

가. 문장 형식

① 간접표현

의문문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모두 25%, 평서문을 선택한 피시험자들은 모두 75%로 평서문이 더 정중하게 들린다고 답하였다. 화자가 비난이나 불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의문문과 평서문 중 한국인은 평서문을 더 정중한 장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문 결과 드러났다. 대화의 상황은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자 직원 A가 상사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이다. 의문문에서 ‘blame’이라는 비난의 의미가 담긴 직접적인 어휘의 사용과 의문문의 사용이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이를 덜 정중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서문으로 사용된 문장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상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신입사원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표현하여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평서문을 더욱 정중한 표현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② 의문문

Please를 동반한 명령문을 선택한 한국인 응답자는 23%이고 의문문을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 응답자는 77%로 의문문 형태의 문장을 더 정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화는 직원이 상사에게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 명령문에 ‘please’가 있다하더라도 한국인은 의문문의 형태가 요청의 의미를 전달할 때는 더욱 정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평서문

명령문은 47%, 평서문은 53%로 평서문이 더 정중하다고 대답하였다. 발화의 상황은 상사가 직원 A에게 B가 아프다고 하자 휴식을 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상황은 아픈 직원에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의

미를 담고 있지만 허락의 받는 당사자는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라 ‘Tell her~’ 이라고 시작되는 간접 명령문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평서문은 허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동사 ‘can’ 이 사용되었다. 한국인 응답자들은 허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발화에서 평서문을 선택하였으나 간접 명령문의 형태의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나. 격식체

① 수동태

한국인은 응답에서 능동태 문장은 25%, 수동태 문장은 75%가 선택하여 수동태 문장이 더 정중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손님이 건넨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대신 현금만 받겠다고 하며 거절을 표시하고 있는 문장이다. 수동태는 행위자와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어 대화자 사이의 격원의 거리를 드러내는 문법 장치이다. 수동태를 사용한 문장은 사물 주어와 수동태 구문을 이용하여 거절하는 주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손님이 체면 손상 행위 (face-threatening)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인은 수동태의 사용을 공손 장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격식체 어휘

응답자들 중 ‘consider’ 는 77%, ‘think of’ 는 23%를 선택하여 ‘consider’ 가 ‘think of’ 보다 더욱 정중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어휘의 사전적 의미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consider’ 를 더욱 정중한 어휘로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어휘를 학습할 때 ‘consider’ 는 ‘고려하다’ 로 ‘think of’ 는 ‘생각하다’ 로 암기하고 있어 한국어에서 한자어를 더 격식있는 어휘로 여기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ask for’ 와 ‘demand’ 는 각각 63%와 37%로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 응답자들은 ‘ask for’ 를 ‘demand’ 에 비해 더 정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두 어휘의 사전적의미를 살펴보면 ‘demand’ 는 상대방이 요청에 대한 거절을 기대하지 않을 정도의 명령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요청에 대한 부담을 강요하는 직접적인 어휘이다. 이에 비해 ‘ask for’ 는 ‘demand’ 만큼 뜻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설문 결과는 한국인 응답자들이 이런 의미적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사물 주어

사물 주어는 33%, 인칭 주어는 67%로 나타나 한국인 응답자는 인칭 주어의 사용을 더 정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화의 배경은 상사가 직원을 격려하며 직원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다. 한국인 응답자들은 이 문장이 상사의 발화이므로 청자의 입장에서 적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하여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더 정중한 것이라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복수 주어

복수주어의 사용이 더 정중하다고한 응답이 93%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 응답자들은 복수주어가 정중성을 드러내는 장치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안의 의미가 있는 발화에서 화자를 포함한 복수주어 ‘we’ 의 사용이 단수주어 ‘I’ 에 비해 정중한 표현

이라는 것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정중 장치임을 보여준다.

다. 조동사

응답자의 95%가 조동사의 사용을 더욱 정중한 표현이라고 응답하였다. 발화의 배경은 회사에 문제가 생기자 직원이 상사에게 괜찮을지를 물어보는 내용이다. 95%의 응답자가 조동사 ‘will’ 을 사용한 문장이 더 정중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미루어 한국인 학습자들은 조동사의 사용이 정중성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90%이상의 높은 응답의 비율로 보았을 때 조동사의 사용이 한국인에게 익숙한 정중 장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라. 이유 및 설명

89%의 한국인 응답자가 이유 설명이 있는 문장이 더 정중하다고 응답하였다. 발화의 배경은 화자가 사과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사과에 대한 설명이 정중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 장치는 한국인에게 익숙하다고 볼 수 있다.

4.2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 양상

4.2.1 연구 과제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 정도를 비교하여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을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4.1장

에서 한국인들의 영어 정중성 인식 정도를 설문 조사하여 알아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한국인 학습자와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설문의 대상자는 한국의 2년제와 4년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4명의 원어민¹⁰⁾으로 캐나다인 1명, 미국인 2명, 영국인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5년 이상의 대학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

4.2.2 자료 수집

이 연구는 4.1장에서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된 설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 역시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설문 문항과 동일한 것으로 서로 다른 정중 장치가 사용된 비교 문장으로 구성된 10개의 비교 set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비교 set에서는 발화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의미가 같은 2개의 문장이 제시되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정중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설문 참여자는 두 선택지 중 더욱 정중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4.1의 설문과 마찬가지로 문장형식, 격식체, 조동사, 이유 및 설명의 크게 4개의 정중 장치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중 장치로 구분하였다.

문장 형식의 세부 정중 장치에 대해 의문문과 평서문, Please 명령문과

10) 설문을 구성할 당시의 계획보다 설문 대상자의 수가 줄어들어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에서 뚜렷한 인식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한국인과 인식 정도를 비교하는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의문문, 명령문과 평서문의 비교로 설정하였으며 격식체는 4가지 세부 정
중 장치 중 수동태와 어휘, 사물 주어와 복수 주어로 나누어 원어민의 영
어 정중성 인식 정도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조동사와 이유 및 설명의
유무에 대한 설문도 각각 1문항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4.2.3 분석 및 결과

원어민 영어 강사를 대상으로 한 영어 정중성 인식 정도를 설문 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두 개의 선택지 중 더욱 정중하다고 인식되는 항목을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화용인식을 양상을 알아보
기 위한 설문에서 설문에 응답한 원어민 강사의 수를 꼽을 수 있겠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에 대한 경향성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다음의
<표 15>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15> 원어민의 영어 정중장치 사용의 적절성 인식 양상

정중장치	세부 정중장치		선택 횟수	합계
문장 형식	직접표현 간접표현		3 (75%) 1 (25%)	4 (100%)
	please 명령문 의문문		1 (25%) 3 (75%)	4 (100%)
	명령문 평서문		3 (75%) 1 (25%)	4 (100%)
격식체	수동태 능동태		4 (100%) 0 (0%)	4 (100%)
	어휘	consider think of	2 (50%) 2 (50%)	4 (100%)
		ask for demand	3 (75%) 1 (25%)	4 (100%)
	사물 주어 인칭주어		2 (50%) 2 (50%)	4 (100%)
	복수 주어 단수 주어		4 (100%) 0 (0%)	4 (100%)
조동사	조동사 사용 有 조동사 사용 無		4 (100%) 0 (0%)	4 (100%)
이유 및 설명	이유 설명 有 이유 설명 無		4 (100%) 0 (0%)	4 (100%)

가. 문장 형식

① 의문문과 평서문

75%의 원어민이 의문문을 선택하여 의문문 형태가 더 정중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원이 상사의 행동을 비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장에서 ‘blame’이라는 직접적으로 비난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은 평서문의 형태를 더 정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원어민 응답으로 보아 제시된 평서문 ‘He knows basically nothing’의 의미로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가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Please 명령문과 의문문

의문문의 문장 형태에 대해 75%의 원어민이 더 정중하다고 응답하였다. 직원이 상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정중성이 특히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므로 정중성의 정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Blum-Kulla(1987)의 정중성의 정도에 따른 요청 문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③ 간접명령문과 평서문

간접명령문이 더 정중하다는 응답이 75%로 원어민은 간접의문문의 형태를 정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쉬어도 좋다’ 의미를 가진 두 문장에서 간접적인 형태의 명령문이 평서문보다 더 정중한 장치로 원어민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격식체

① 수동태

수동태의 사용은 응답자 전원(100%)이 능동태보다 정중하다고 대답하였다. 청자가 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인칭주어를 사용한 능동태의 문장보다 거절의 주체인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수동태 문장의 사용이 정중성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② 격식체 표현

원어민들의 ‘consider’ 과 ‘think of’ 에 대한 대답은 각각 50%로 나타나 두 어휘의 정중 정도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두 어휘의 사전적 의미처럼 정중성 정도의 차이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ask for’ 는 75%, ‘demand’ 는 25%로 응답하여 원어민들은 ‘ask for’ 를 더 정중한 어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직접적인 요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demand’ 의 사용이 상대의 요청에 대한 청자의 선택권을 줄이므로 ‘ask for’ 보다 정중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사물 주어

사물 주어의 사용과 인칭 주어의 사용에 대해 각각 50%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원어민은 사물 주어와 인칭 주어에 대한 정중성의 정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인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격식체 세부 정중 장치인 ‘we’ 를 인칭 주어에 사용하여 두 정중 장치의 정중 정도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의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④ 복수 주어

원어민의 100%가 복수 주어의 사용이 더욱 정중한 것이라 응답하였다.

제안의 의미가 있는 문장에서 원어민은 단수 주어인 ‘I’ 보다는 화자를 포함한 ‘We’의 사용이 더욱 정중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설문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다. 조동사

조동사의 사용을 더 정중하다고 원어민 전원(100%)이 대답하였다. 조동사의 사용을 통해 정중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으며 조동사가 정중 장치임을 원어민들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다.

라. 이유 및 설명

응답한 원어민 100%가 이유의 설명이 있는 것이 정중하다고 응답하였다.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에서 미안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을 충족시키는 공손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다.

4.3 한국인과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 양상 비교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정중성 인식 양상을 보여주는 항목은 모두 6가지이다. 한국인은 원어민과 마찬가지로 문장 형식에서는 명령문보다 의문문을 더 정중한 장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격식체에서 능동태 문장보다는 수동태 문장이 정중한 표현이며 ‘ask for’가 ‘demand’에 비해 대화 상대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이라는 부분, 또한 복수 주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원어민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동사의 사용과 이유 설명의 제공이라는 전략도 공손 장치로 인식하는 점도 한국인과 원어민의 인식이 동일하였다. 한국인이 원어민과 정중성에 대한 인식이 동일한 문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문장 형식에서 한국인과 원어민은 의문문의 형태가 평서문보다 더욱 정중한 것으로 보았다. Blum-Kulka(1987)의 9가지 요청 전략 유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비조건에 대한 의문문의 문장 형태가 명령문에 비해 덜 직접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격식체의 세부 정중 장치 중 한국인이 원어민과 동일한 인식을 보이는 항목은 모두 3가지이다. 먼저 수동태의 사용에 대해 한국인과 원어민 모두 수동태가 정중 장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인은 수동태의 사용이 거절의 상황에서 거절의 주체인 화자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를 두는 언어 표현이며, 청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원어민과 같은 정중성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어휘에 대한 것으로 한국인은 원어민과 같이 ‘ask for’가 ‘demand’에 비해 더 정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인의 응답에서 살펴보았듯이 ‘demand’의 어휘적 의미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과 원어민 모두 복수주어의 사용을 정중 장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요청이나 제안을 할 때 단수 주어 ‘I’보다는 복수주어 ‘we’의 사용이 더욱 정중하다는 것을 한국인도 원어민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유대감 대신 상대와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정중성과 관련이 있는바 복수 주어에 화자를 내포하여 격식성을 표현하여 거리를 두는 것으로 정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조동사의 사용 역시 한국인의 정중성 인식과 원어민의 정중성 인식이 동일하였다. 한국인은 조동사의 사용이 정중성을 드러내는데 사용한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으며 익숙한 정중 장치임을 보여주었다.

이유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정중 장치임을 한국인과 원어민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원어민 모두 사과를 할 때 이유의 설명이 있는 것이 더욱 정중하게 여긴다고 응답하였다. Olshtain과 Cohen(1983)은 사과 화행에서 ‘be sorry’ , ‘excuse me’ 와 같은 사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잘못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 설명이나 해명하는 것,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설명과 해명이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대화 상대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는 일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인이 원어민과 정중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표 16>에 정리하였다.

<표 16> 한국인과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 차이

정중장치	세부 정중장치		한국인	원어민
문장 형식	직접표현		14 (25%)	3 (75%)
	간접표현		43 (75%)	1 (25%)
	합계		57 (100%)	4 (100%)
	간접 명령문		27 (47%)	3 (75%)
	평서문		30 (53%)	1 (25%)
	합계		57 (100%)	4 (100%)
격식체	어휘	consider	44 (77%)	2 (50%)
		think of	13 (23%)	2 (50%)
	합계		57 (100%)	4 (100%)
	사물 주어		19 (33%)	2 (50%)
	인칭주어		38 (67%)	2 (50%)
	합계		57 (100%)	4 (100%)

정중성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어민과 한국인의 응답의 차이가 보이는 항목들이 모두 4개로 문장 형식에 있어 의문문과 평서문, 간접 명령문과 평서문, 격식체 항목에서 어휘 ‘consider’ 과 ‘ask for’ , 사물 주어 사용에 대한 것이다. 한국인과 원어민의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고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의문문과 평서문의 문장 형태에서 한국인과 원어민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인 응답자의 75%는 평서문의 형태로 제시된 문장을 더 정중한 것으로 선택하였고, 원어민 응답자는 75%가 의문문 형태를 더욱 정중한 표현으로 선택하였다. 이 응답의 결과는 한국인과 원어민이 상반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은 신입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사에게 그 신입직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현은 상사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입직원을 감싸주고 있다고 인식하며, 신입직

원을 비난하는 이유를 묻는 의문문의 형태는 오히려 상사의 행동을 추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원어민은 신입직원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 신입직원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어 응답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접 명령문과 평서문의 문장 형태에서도 한국인과 영어 원어민의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인은 53%가 평서문이, 원어민은 75%가 의문문이 더 정중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상사가 직원 A에게 직원 B가 아프면 쉬어도 좋다는 표현으로 ‘Tell her~’ 로 시작하는 간접 명령문의 형태와 ‘She can~’ 으로 시작하는 평서문이 제시되었다. 한국인은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can’ 을 포함한 평서문이 더 정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간접 명령문이라도 명령문의 형태를 덜 정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원어민은 간접의문문의 문장 형태가 더 정중하다고 대답하여 한국인의 응답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격식체에서 드러난 어휘와 사물 주어에 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자. 먼저 ‘consider’ 과 ‘think of’ 의 비교에서 한국인 응답자 77%가 ‘consider’ 의 사용이 더 정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원어민의 응답에서는 어느 한 어휘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원어민은 두 어휘의 공손 정도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반면 한국인은 ‘consider’ 가 ‘think of’ 보다 정중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앞서 살펴본 두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의미상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어휘를 학습할 때 ‘consider’ 은 ‘고려하다’ 로 ‘think of’ 는 ‘생각하다’ , ‘떠올리다’ 로 학습한다. 번역된 한국어 의미가 선택에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물 주어의 사용에 있어 한국인의 응답은 67%가 인칭주어인 ‘we’ 를 더 정중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원어민은 각각 50%씩의 응답하여 두 문장

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격려하는 표현으로 ‘we’ 와 ‘company’ 를 각각의 주어로 사용한 문장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응답에서 화자를 포함한 ‘we’ 를 더 정중하다고 본 것은 이 발화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사의 발화로 직원의 입장에서 상사가 자신과의 거리를 가깝다고 여기는 것이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4장의 설문을 통해 한국인과 원어민의 정중성 인식 양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10문항 중 6문항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일치였고, 4가지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은 명령문보다 의문문, 능동태보다는 수동태의 사용이, 단수 주어보다 복수주어의 사용에 대해 정중 장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동사와 이유 설명의 제공 또한 한국인이 잘 인식하고 있는 정중 장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대상이 현재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로 영어 수준이 높은 화자들임을 감안할 때 정중성 인식의 차이가 40% 라는 것은 한국인이 정중성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장의 연구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대화의 상대방에게 적절한 정중 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4장에서 한국인과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에 대한 인식이 문장형식과 사물 주어의 사용, 어휘에 대해 원어민과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V. 영상을 활용한 화용연구의 실증적 접근

화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많이 시도되고 있는 방안으로 영화나 영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e)이라고 일컬어지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으로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과 함께 화용능력(pragmatic competence)도 포함하고 있다(Canale & Swain, 1980). 이때 화용능력은 상황의 맥락에 따라 알맞은 발화를 할 수 있는 능력, 문법적 능력은 문장의 형태와 문법, 어휘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 이하 EFL)환경의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은 언어능력 중 문법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문법능력과 화용능력의 균형적인 언어능력의 발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정중성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용능력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처럼 화용능력의 부족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목표 언어의 화용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Eslami-Rasekh, 2005).

Omagio Hadley(2001)는 문화와 그에 따른 맥락적 상황을 이해하여 화용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영화와 같은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Judd(1999) 또한 화행의 인지적 자각 즉, cognitive awareness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영상자료를 꼽고 있다.

영상을 활용한 화용능력에 대한 연구가 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용능력에 활용되는 자료는 영상보다는 텍스트에 주로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정중성과 같이 화용 능력 향상을 위해 영상을 이용하고자 할 때 텍스트와 영상의 활용은 각각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상대의 발화의도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즉, 영상을 화용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 영상과 텍스트를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5.1 연구도구

화용능력을 알아보는 연구 도구로 요청, 거절, 조언, 협박의 화행 4가지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화용 자료는 영상자료인 2015년도 영화 ‘인턴’에서 텍스트와 영상을 선택하였다. 영화의 주인공 줄스(Jules)로 말하자면 30대의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사업을 시작하고 고작 1년 반 만에 220명의 직원이 있는 사업체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를 젊고 자신만만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다. 어느 날 회사에 70세 노인 Ben이 인턴으로 입사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영화로 다루고 있다. 영화는 대부분 직장과 가정의 배경이 되며, 대화의 내용도 평범한 일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15에 제작되었으므로 비교적 최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표 17>에서는 방금 소개한 영화에서 선택된 요청, 거절, 조언, 협박의 화행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7> 영화 속 화행

화행	화자	대화내용
요청	Jules	Hi. Nice to see you here.
	other parents	Hi. Uh, not sure if you got our e-mail, but we' re doing a fiesta lunch next Friday, and <u>we thought you could bring the guacamole.</u>
거절	Becky	Yeah, I like that. Um, is now a good time to call your mom back?
	Jules	Dude, <u>I' m on a bike.</u>
조언	Davis	No, it' s horrible. Uh... But I can get in this week.
	Ben	Well, <u>if I were you, I' d keep looking.</u> Okay. Hey, Lewis. What' s up? I' ve never seen you so awake.
협박	Mike	I don' t know what you' re talking about, man.
	Ben	<u>Why don' t you tell her you can' t drive her today, or I' m gonna have to.</u>

첫째, 영화 ‘인턴’ 에서 나타난 요청 상황이다. Searle(1976)은 요청 행위는 지시 분류로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에 속하며 청자는 화자가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표 17>의 요청 화행은 주인공 Jules가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반 친구들의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Searle(1976)의 정의에 따르면 청자인 Jules가 ‘bring’ 즉, 무언가를 가져오는 동작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의도가 전달되고 있으므로 요청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발화에서 조동사 ‘could’ 를 사용하여 화자는 청자

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돌려 표현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요청을 나타내고 있다(Gibbs, 1986).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화행은 거절로 이는 대화 상대자가 화자의 요청이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되므로 화자의 체면이 손상되는 행위인 FTA라 할 수 있다. 그래서 Chen(1995)은 거절은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접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워 높은 화용능력(pragmatic competence)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 표에서 제시된 대화문에서 주인공 Jules는 자신의 비서 Becky의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대화의 주제를 전혀 다른 화제로 돌리면서 그 제안에 대해 간접 전략을 사용하여 회피라는 방법으로 거절을 드러내고 있다. Beebe et al.(1990)의 거절 전략(refusal strategies)의 분류표는 거절에 대한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분류표에 따르면 회피는 간접적으로 거절하는데 사용되는 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조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행을 살펴보자. 조언은 지시화행의 유형이지만 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화행이다(Searle, 1975). 그러나 이는 지시화행 가운데서도 구속력이 떨어지는 비구속적 화행으로 Tsui(1994)는 청자가 반드시 화자의 지시를 따라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다. <표 17>에서 제시된 조언에 대한 예문은 Davis와 Ben이 나누는 대화로 그들은 나이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에서는 상하 관계없는 회사동료로서 평등한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 Davis는 Ben의 지시 즉, 조언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Ben의 발화 전략을 살펴보면 Davis에게 자신이 그의 입장이라면 집을 계속 찾아보겠다며 언표적으로는 가정법의 형식을 취하여 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화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갈 곳 없는 Davis가 당장 들어갈 수는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다른 조건은 모두 최악인 집을 선택하지 말고 더 나은 선택을 좀 더 찾아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는 조언이라 볼 수 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위협의 의도가 있는 협박 화행의 예를 살펴보자. 협박의 발화 목적에 대해 Searle(1969)은 청자에게 특히 불리한 미래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청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다. <표 17>에서 Ben은 ‘Why don’ t you~?’의 표현을 사용하여 형식적으로 제안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제안을 듣지 않는다면 청자인 Mike가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고 마무리한다. Jules의 운전기사인 Mike의 음주에 대해 고용주가 알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르므로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Mike는 Ben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는 협박을 나타낸 화행으로 화자가 제안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청자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영상을 통하여 화용 연구의 실증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112명으로 부산에 위치해 있는 4년제 대학에서 교양 영어 중 영어로 실용적인 글쓰기를 배우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설문의 실시 시기는 2018학년도 1학기 중 중간고사가 끝난 10주차 수업시간이다. 학생들의 학년은 1학년에 4학년에 고루 걸쳐 있었으며 이 학생들은 모두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닌 비영어전공자들이 이 설문의 대상이 되었다.

5.2 연구방법

5.2.1 연구 설계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 즉 화용능력이 텍스트와 영상에 따라 그 차이가 드러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영화 ‘인턴’에서 선택된 A-B의 형식의 간단한 10개의 대화문을 사용하였다. 이 대화문은 요청, 거절, 조언, 협박의 의도가 있는 화행으로 그 종류와 수는 아래의 <표 18>에 정리하였다.

<표 18> 테스트의 화행 종류

화행의 종류	요청	거절	조언	협박	합계
	4	3	2	1	10

첫 번째로 영상의 텍스트를 활용한 테스트에 대해 살펴보자. 화용능력을 측정해야 하는 테스트에서, 짧은 대화문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화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설명한 간단한 지문이 대화쌍과 함께 첨가되었다. 테스트 참여자는 상황과 대화문을 읽고 화자의 의도를 제시된 보기에서 골라 답할 수 있도록 객관식 형식을 취하였다. <그림 4>는 테스트를 활용한 화자의 의도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에서 사용된 문항 중 하나이다.

<그림 4> 텍스트를 통한 화용인식 테스트 문항 예시

(Jules의 사무실에서 영향력이 큰 동료 Cameron이 사장인 Jules에게 이번에 새로 채용된 시니어 인턴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물고 보는 상황)

Cameron Because you have to set the tone. Now, would you prefer a man or a woman? There's a great 72-year-old woman, really cute.

Jules That's like the same age as my mom. That's too weird.

Q1. 밑줄 친 대사가 의미하는 것은?

- ① 거절 ② 요청 ③ 협박 ④ 조언 ⑤ 불평
⑥ 해당사항 없음. (없다면 어떤 의미인가?) _____

보기에는 요청과 거절, 조언과 협박의 보기와 함께 또 다른 보기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문맥이 아니라 문법이나 어휘적 특성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보기이다. 이는 화행을 인식할 때 문장에 사용된 문법사항이나 어휘의 의미가 화행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응답자가 보기 중에서 자신이 판단한 화행의 보기가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이 없는 보기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테스트는 2명의 원어민 화자와 대학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 3명에 의해 감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영상을 통한 화용능력 측정을 위해서 작성된 테스트에서는 대화와 대화의 상황이 제시된 텍스트는 생략하였다. 이번에는 대신 영상을 제공하여 영상의 의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의 < 그림 5> 는 영상을 통한 화용판단 테스트의 시험 문항 예시이다.

< 그림 5> 영상을 통한 화용인식 테스트 문항 예시



Q. Becky의 대사가 의미하는 것은?

① 거절 ② 요청 ③ 협박 ④ 조언 ⑤ 설명 ⑥ 해당사항 없음 _____

5.2.2 연구 절차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를 TEST1,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를 TEST2라 칭하기로 한다. TEST1은 10개의 대화문을 읽고 화자의 의도를 보기에 고르는 테스트이므로 화용의 판단 근거는 지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TEST2는 TEST1에서 제시된 화행의 영화 영상(movie clip)이 대화문 대신 제공된다. 이 테스트에서는 텍스트가 배제되고 시청각 자료인 영화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영상(movie clip)을 보고 대화의 화행을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TEST1과 TEST2 모두에 대화문과 영상의 대화 배경을 제공하여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TEST1과 TEST2의 내용은 동일하며 테스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TEST1과 TEST2의 각 항목에 대한 답을 표시할 수 있도록 테스트지와는 별도로 답안지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이는 테스트 응답자들이 텍스트를 읽고 파악한 화자의 의도가, 동일한 내용의 영상을 시청한 뒤에는 화자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와 영상을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화자의 의도가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달라졌다면 이에 대한 변경 상황이 답안지의 비교를 통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TEST1과 TEST2에서 제공되는 다른 종류의 자료인 텍스트와 영상으로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TEST1과 TEST2의 정답률을 통해 4가지 화행의 인식 정도를 비교 분석해 볼 것이며, 영상을 사용한 TEST2의 정답률의 상승 항목들에 대해 분석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테스트가 끝나고 추가의 질문이 인터뷰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추가 질문의 목적은 텍스트와 영상의 인식 정도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은 첫 질문의 대답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과 이유를 간략하게 적도록 요구하였다.

5.3 분석 및 결과

5.3.1 텍스트를 통한 화용능력 측정 결과

이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텍스트 기반의 화용능력 측정 결과를 테스트의 답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자. TEST1에서, 대화문만으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화행에 대한 정답률을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표 19>에서는 TEST1의 정답률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표 19> TEST1의 정답률

상황	화행	TEST 1의 정답률
1	거절	68 %
2	거절	39 %
3	협박	18 %
4	거절	49 %
5	조언	60 %
6	요청	15 %
7	요청	41 %
8	조언	50 %
9	요청	37 %
10	요청	6 %
평균		38.3 %

<표 19>에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것은 거절 상황을 나타낸 상황 1로 정답률이 68%이다. 이는 회피를 통해 상대방의 요청을 간접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10개의 화용을 나타낸 대화문 중에서 가장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언을 잘 이해하였는데 각각 60%, 50%로 나타나 한국인 학습자들이 다른 화행에 비해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답률이 50% 이상으로 의도 파악이 잘 되는 화행은 거절, 조언, 조언의 화행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요청을 표현한 상황 10으로 의문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청의 의도를 표현한 대화문이었다. ‘Did we get yesterday’ s number?’ 의 질문에 대해 ‘어제 판매 수치가 나왔으면 가져다 달라’ 는 요청을 파악한 응답자는 불과 6%로 드러나 최저의 정답률을 보였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이와 같이 Yes/No question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요청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기에서 가장 많은 오답으로 표시가 되었던 보기가 ‘질문’ 인 점을 감안하면, 응답자들이 화용을 판단한 근거는 테스트에서 제시된 문법사항을 사용하여 대화를 이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대화를 문법적 특성으로 인식하여 화용인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5%로 다음으로 낮은 화용인식율을 보인 문항 역시 요청 화행으로 나타났다. 요청 화행은 10개 중 4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답률이 모두 50%이하이다. 이를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은 요청 화행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를 기반의 TEST1의 정답률 평균은 38.3%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수치를 통해 테스트 응답자인 한국인 학습자들은 상대의 발화 의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5.3.2 영상을 통한 화용능력 측정 결과

다음으로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화용인식을 알아보는 TEST2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각 상황에 대한 정답률은 표는 <표 20>로 정리하였으며 영상을 통한 화용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20> TEST2의 정답률

상황	화행	TEST 2의 정답률
1	거절	68 %
2	거절	34 %
3	협박	13 %
4	거절	68 %
5	조언	65 %
6	요청	29 %
7	요청	31 %
8	조언	60 %
9	요청	49 %
10	요청	24 %
평균		44.6 %

영상 기반의 TEST2에서 정답률을 통해 화행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화행은 거절화행으로 68%의 정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 상황 1과 4에 제시된 대화문이다.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거절은 대화 상대방에게 체면 손상의 행위(face threatening acts)이므로 상대의 체면을 손상을 막기 위해 주로 간접전략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Chen(1995)은 거절 화행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한국인 학습자는 다른 화행에 비해 거절 화행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절 다음으로 화행의 인식률이 높았던 것은 65%로 조언 화행으로 상황 5와 8로 의 대화문이다. 이를 통해 테스트 응답자들은 거절과 조언에 대한 화용인식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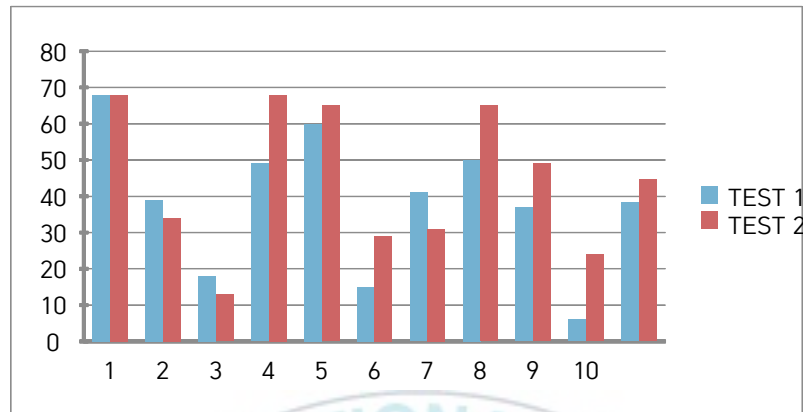
이와 반대로 응답자들이 가장 파악이 힘들었던 화행은 상황 3의 협박으로 정답률 13%로 나타났다. 테스트 응답자들은 화자의 협박에 대한 의도 파

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결과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정답률은 상황 10의 요청, 상황 6의 요청, 상황 7의 요청, 상황 2의 거절, 상황 9의 요청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4개의 요청 화행이 모두 여기에 속해 있어 요청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기반의 화용인식 테스트의 전체 정답률의 평균은 44.6%이다. 영상기반의 테스트에서 조언, 거절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파악하기 힘든 화행은 협박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청 화행에 대한 정답률이 모두 낮아 요청 화행에 대한 인식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3.3. 텍스트와 영상을 통한 화용능력 비교

앞 장에서 영상의 텍스트만을 이용한 화용능력 인식과 영상을 통한 화용능력 인식에 대한 결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각각의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여 화자의 발화 의도를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TEST1과 TEST2의 결과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 6>에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6> 정답률 비교를 통한 화용 인식의 변화



< 그림 6> 에서 텍스트와 영상 기반의 각각의 테스트의 평균을 살펴보면 38.3%에서 44.6%로 영상을 제공하였을 때 화용의 인식이 6.3% 만큼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텍스트와 영상에 대한 화용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영상이 화용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모든 경우에서 화용의 인식이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텍스트에 비해 정답률인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TEST1과 TEST2의 상승폭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많은 정답률의 상승이 있었던 것은 상황 4 거절 화행이다. Jules의 운전기사 Mike가 몰래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Ben이 그가 음주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려하자 Mike 대신에 본인이 대신 운전할 것을 제안하는 장면이다. Jules는 자신의 여자 비서에게 부탁하겠다고 하면서 Ben의 제안에 대한 거절을 표현하고 있다. 상황 4의 거절 상황을 아래의 제시된 <그림 7>의 대화문으로 확인해 보자.

<그림 7> 상황 4 (거절 화행)

Ben	I' m happy to cover for Mike.
Jules	<u>That' s okay. Becky can drive me.</u>

< 그림 7> 에서 Jules는 ‘Becky can drive me’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여자 비서 Becky에게 운전을 부탁하겠다고 한다. 이는 Ben의 제안에 대해 Jules가 거절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텍스트를 기반의 테스트에서 이를 거절이라 인식한 경우는 49%이지만 영상을 통한 테스트에서는 정답률이 68%로 19% 상승하였다. 이는 테스트 응답자들이 텍스트보다 영상을 통해서 대화 상대방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응답자들이 텍스트 기반에서 정답으로 선택한 오답 중 ‘가능’ 을 답으로 선택한 경우가 3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화를 문맥상 이해하기 보다는 can의 문법적 의미에 의존하여 1차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대화 중 화용적 오류(pragmatic failure)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영상에서는 조동사는 문맥적 의미로 인식되어 화자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상에서는 화자의 발화에 나타난 언어적 요소와 더불어 준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에 해당하는 음성, 제스처, 어조와 억양, 표정,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므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화용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상대의 발화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화용적 오류를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이러한 영상자료는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각각의 테스트 이후 인터뷰 형식의 두 가지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대답을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6%의 테스트 응시자들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텍스트보다 영상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영상이 텍스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인데 이는 대화자의 억양, 표정, 제스처 등을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EFL 환경에서 영상을 활용한 화용학습의 교수법과 자료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대로 영상의 제공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준 경우도 살펴 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살펴볼 상황은 거절 의도의 대화문이다. 주인공 Jules는 어머니와 잘 못 지낸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은 시니어 인턴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영상 제공 이후 ‘거절’의 응답자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영상에서 Jules가 거절할 때 불만의 목소리와 표정을 동반하여 발화함으로써 ‘불평’의 보기에 대한 응답이 늘어났다. 비슷한 경우는 협박을 나타내는 상황 3에서도 나타난다. 영상 제공 이후 ‘협박’을 ‘요청’으로 변경한 경우가 늘어나 정답률이 감소하였다. 영상에서 Ben은 매우 점잖고 조용하게 상대방에게 발화한다. 이것이 협박을 요청으로 변경한 원인이 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예를 통해 상황에서 영상으로 제공되는 추가적인 정보(억양, 톤 등)이 화용의 인식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어진 대화의 영상이 짧았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테스트의 결과를 종합하면, 영상의 제공이 텍스트 보다 전체적으로 화용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 기반의 대화문에서는 주로 텍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와 여러 가지 문법적 지식이 화용의 인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자의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맥락이 있는 영상을 통해서 대화는 일어나는 상황과 맥락 정보를 활용하여 화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설문 대상자들에게 내용이 동일한 텍스트와 영상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여

영상을 제공하였을 때는 텍스트에 이어 같은 내용의 반복이 영상에서 화용 인식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제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지금까지 두 테스트의 결과를 비교하여 자료의 종류에 따라 화용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각 테스트의 정답률의 변화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텍스트 기반의 TEST1과 영상 기반의 TEST2를 영상의 제공 전과 후로 나누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21> TEST1과 TEST2의 대응표본 검정결과

상관계수				유의확률
대응1 TEST1 & TEST2				.001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6.30000	10.68800	3.37984	-1.864	.095

<표 21>은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여 영상의 제공의 전과 후로 나누어 두 개의 테스트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TEST1과 TEST2의 상관계수는 0.864이고, 유의확률 p값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0.05보다 낮다. 따라서 텍스트 기반의 TEST1과 영상 기반의 TEST2의 정답률에 대해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응표본 t-test의 결과를 살펴보면 t값이 1.864, 유의확률이 0.095로 0.05보다 높아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정답률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화용인식의 향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영상을 보기 전과 후의 화용인식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테스트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텍스트 보다는 영상을 제공하였을 때가 응답자들의 화용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화행에 대해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결과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텍스트로 제시된 대화에서는 어휘나 문법적 지식이 화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반면, 실제 상황과 맥락을 포함한 영상으로 상황을 접하는 경우에는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과 맥락의 정보를 활용하여 화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텍스트와 영상을 통한 화용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화의 영상 자체를 활용한 연구와 그 텍스트만을 활용한 연구에서 화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화를 활용한 연구에서 영상과 텍스트활용이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화용 능력을 알아보기 세 개의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정중성 사용 양상에 관한 것이다. 정중성이 요구되어지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한국인 화자가 사용하는 영어 정중 장치에 대해 31명의 영어 번역 과제를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정중 장치인 경어체의 높임 (대)명사는 영어 과소부호화되어 있으므로 영어의 정중 장치로 구현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문법적 장치를 이용하여 정중성의 실현을 시도하였다. 문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인 학습자가 정중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조동사나 주어 ‘we’의 사용이다. 반면 수동태 문장과 사물 주어의 사용, 요청 시 의문문으로의 전환하는 전략의 사용은 찾기 어려운데 이는 수동태와 사물 주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 학습자가 사용하는 정중 장치의 사용은 제한적이고 다양하지 못하다. 화용 능력의 신장을 위해 적절한 정중 장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는 한국인의 영어 정중성 인식 양상을 알아보고 원어민의 영어 정중성 인식과 비교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춘 대학교 영어 강사들과 원어민 강사는 10개중 4가지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사물 주어와 어휘, 문장 형태에 관한 것이다. 인식의 차이는 정중성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인에게 특히 사용하기 어려운 정중 장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연구는 영상을 활용한 화용 연구의 실증적 접근에 대한 연구이다. 화용 능력의 향상을 위해 영화와 같은 영상의 활용을 연계한 교육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은 가운데 연구의 자료로 영상을 배제한 영상의 텍스트만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영상과 텍스트를 이용한 화용 인식은 차이가 있으며 영상을 활용한 연구에서 영상과 텍스트 활용이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세 개의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 학습자의 화용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황에 맞는 정중성의 구현은 화용 능력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인 학습자의 제한된 정중성 사용을 다양화하고 영어 원어민과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문금현. (2017). 한국어 공손성 표현의 생성 유형 분류. *한국어와 문화*, 21, 51-75.
- 이익섭, 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자원. (2005). Authenticity in movies. *영상영어교육*, 6(2), 3-18.
- 홍병호. (1992). *영어와 한국어에 있어서의 문체와 'Politeness'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건국 대학교.
-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ebe, Leslie M., Tomoko Takahashi, & Robin Uliss-Weltz. (1990). Pragmatic transfer in ESL refusals.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a second language*, 5573.
- Blum-Kulka, S. (1987). Indirectness and Politeness in Requests: Smae or Different? *Journal of Pragmatics*, 11, 131-146.
- Brown, P. and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nale, Michael, & Merrill Swain.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Chen, X., Ye, L., & Zhang, Y. (1995). Refusing in Chinese. *Pragmatics of Chinese as native and target language*, 119-163.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 Cohen, A. D., Olshtain, E. & Rosenstein, D. (1986). Advanced EFL apologies: What remains to be learned.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62(6), 51–74.
- Eslami-Rasekh, Z. (2005). Raising the pragmatic awareness of language learners. *ELT journal*, 59(3), 199–208.
- Fraser, B. (1975). Hedged Performatives. In Cole & Morgan, *Syntax and Semantics*, 3, 187–210.
- Fraser, B. (1990). Perspectives on 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14, 219–236.
- Gibbs, Raymond W. (1986). What makes some indirect speech acts conventional?.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5(2), 181.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interaction*.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and Morgan, J.(Eds.), *Syntax & Semantics*, 3.
- Hatch, E. (1992). *Discourse and language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ll, B., Ide, S., Ikuta, S., Kawasaki, A., & Ogino, T. (1986). Universals of linguistic politeness: Quantitative evidence from Japanese and American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10(3), 347–371.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 Ide. (1982). Japanese sociolinguistics : politeness and women's language, *Lingua*, 57, 357–385.
- Judd, E. L. (1999). Some issues in the teaching of pragmatic competence.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5(3), 152–166.
- Kasper, Gabriele. (2001). Four perspectives on L2 pragmatic development. *Applied Linguistics* 22(4), 502–530.
- Lakoff, R. T.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Minding your p's and q's.
- Leech, G. (1983). *Principles of politenes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Moor, H., Halsey, K., Jones, M., Martin, K., Stott, A., Brown, C., & Harland, J. (2005).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eachers Early in Their Careers: An Evaluation of the Early Professional Development Pilot Scheme*. Research Report RR613.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The Mere, Upton Park, Slough, Berkshire, SL1 2DQ, UK.
- Omaggio Hadley, Alice C. (2001).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Heinle & Heinle.
- Perkins, M. R. (1983). *Modal Expressions in English*. London: Frances Printer.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earle, John R., & Rogers Searle.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ohn R., (1975). *Indirect Speech Acts. Expression and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ohn R. (1976). A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1), 1–23.
- Stempleski, Susan & Tomalin, Barry. (2001). *Film*. Oxford University Press.
- Tusi, Amy M. (1994). *English Convers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Watts, R. J., Ide, S., & Ehlich, K. (Eds.). (2008). *Politeness in language: Studies in its history, theory and practice*. Walter de Gruyter.
- Wolfson, N. (1988). The bulge: A theory of speech behavior and social distance. In J. Fine (Eds.), *Second language discourse: A textbook of current research* (pp. 21–38). Norwood, NJ: Ablex.
- Wood, J.D. (1995). Good Video Movies for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or Second Language.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Cultural Research Institute of Chikushi Jogakuen College*, 6, 105–25.

한영 번역에서 정중 장치 사용의 적절성 인식에 관한 설문 항목

아래의 문장을 읽고 주어진 상황에 더욱 정중하게 들리는 말을 고르세요.

주어진 상황은 전부 사적인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상 이루어진 공적인 관계입니다

1. 화자가 연락을 하기로하고 미처 연락을 못해서 거래처 지인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에서

- a. Sorry I had no time to call you.
- b. Sorry I couldn't call because things got complicated.

2. 가게에서 손님이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하자 점원이 그 고객에게 말하는 상황

- a. I'm sorry, we accept cash only.
- b. I'm sorry but only cash is accepted.

3. 거래처 고객을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상황

- a. I'll be there.
- b. We can meet at the place.

4.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자 직원A가 상사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

- a. Why do you blame on him?
- b. He knows basically nothing.

5. 상사가 부하직원이 부인과 하는 통화를 듣고 충고하듯이 하는 말

- a. You should consider your family.
- b. You should think of your family.

6.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대사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 a. We can ask for their identification.
- b. We can demand their identification.

8. 상사가 직원 A에게 직원 B가 아프다고 하자 휴식을 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

- a. Tell her to get some rest.
- b. She can take a rest.

9. 회사 내 문제가 생기자 직원A가 상사에게

- a. Is it ok?
- b. Will it be ok?

10. 상사가 직원 A에게 격려차 하는 말

- a. We need people like you.
- b. Companies need people like you.

설문자에 대한 기본 사항

- 1. 전공:
- 2. 영어권 국가 체류 유학 경험:
- 3. 교직 경력:

★ 조동사의 비교

11. 상사가 직원 A에게 격려차 하는 말 (정중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세요)

- a. That's why you should stay for the team. ()
- b. That's why you must stay for the team. ()
- c. That's why you can stay for the team. ()
- d. That's why you have to stay for the team. ()

Questionnaire

Read the sentences below and choose words that sound more polite to the situation. The given situation is a public relationship, not a personal relationship.

1. The situation: When the speaker was supposed to call, but was unable to contact.
- a. Sorry I had no time to call you.
b. Sorry I couldn't call because things got complicated.
2. The situation: the clerk tells the customer that the customer wants to pay with the card at the shop.
- a. I'm sorry, we accept cash only.
b. I'm sorry but only cash is accepted.
3. The Situation: someone is supposed to meet a customer.
- a. I'll be there.
b. We can meet at the place.
4. The situation: When the boss wants to pass responsibility for the new employee, the employee complains to the boss.
- a. Why do you blame on him?
b. He knows basically nothing.
5. The situation: The boss gives advice to his staff concerning his staff's home.
- a. You should consider your family.
b. You should think of your family.
6. The situation: When a staff proposes to ask his boss for the necessary information.
- a. We can ask for their identification.
b. We can demand their identification.
7. The situation: A subordinate who has a conversation asks his boss to leave.
- a. Please, go out.
b. Will you go out?
8. The situation: A boss tells *employee A* that "if *employee B* is sick, take a break."
- a. Tell her to get some rest.
b. She can take a rest.
9. The situation: A staff asks to his boss concerning the situation the company has problem.
- a. Is it ok?
b. Will it be ok?
10. The situation: A boss encourages his staff.
- a. We need people like you.
b. Companies need people like you.
-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Where are you from ? _____